



성도의벗 6
1974

순종
~~질서~~ - 하나님의 첫째 율법

에스 딜워스 영
칠십인 제일 정원회

순종

1974년 6월호

여 러 해 전, 대관장단의 찰스 더블류 펜로즈 부대관장님은 솔트레이크시티의 리차드 와드의 성찬식에 참석하셨습니다. 모임 시기 직전에 펜로즈 부대관장님은 감독과 함께 통로를 통하여 연단으로 걸어 들어 오셨습니다.

통로를 반쯤 가시다가는 걸음을 멈추시고 감독에게 “저건 누가 붙였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저것”이란 연단 앞에 붙어 있는 플래카드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플래카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질서는 하나님의 첫째 율법이다.”

감독은 누가 붙였는지는 모르나 아마도 어느 보조 조직에서 붙였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상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부대관장님과 감독은 연단까지 걸어 갔고 모임은 예정대로 시작되었습니다.

펜로즈 부대관장이 그곳에서 어떤 주제를 갖고 말씀하려 했었는지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첫째 율법은 질서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약 45분간 논리적인 근거와 성구를 찾아 가면서 그의 주장을 증명하였습니다. 그 당시 어린 소년이었던 나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순종으로는 질서가 이루어지지만, 순종이 없이는 질서가 아닌 혼란만이 야기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 하나님의 목적에 관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계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서 계시더니, 자기와 함께 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내려가자. 저곳에 공간이 있음이다. 우리는 이들 재료를 취하여 이들이 살게 될 땅을 만들자.

“이로써 우리는 저들을 시험하여 주 저희 하나님이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자.”(아브라함서 3:24-25)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려면 그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리 범위 내에서 의를 행사하는 관리 직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관장, 스테이크 부장, 와드의 감독, 정원회의 회장 등 각 분야에서 봉사하는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

벗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김볼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러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 브라운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1974년 6월 1일

매월 1일 발행

통권 제 107호

발행인 겸 편집인 : 엘 에드워드 브라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 73-5331

발행소 : 서울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 서울 1409

인쇄인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유 건수

순서

순종 - 하나님의 첫째 율법

요셉 스미스의 위대성과

놀랄만한 시현

발견

나부의 미이라

제데다이아 엠 그랜트

올슨 프랫

조지 에이 스미스

오 사랑스러운 아침

대회 말씀

십일조의 축복

첫번째 순교

심심풀이

꿈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때

자신을 존중할 수 있다

지고의 영예 : 여성의 사명

보상, 축복, 약속,

스테이크 부장단 메시지

내외소식

에스 딜워스 영

제리 시 라운드

더블류 랄프 오돔

리차즈, 마드슨

시푸아우 제이 마추아우토

해롤드 비 리

엔 엘돈 태너

스펜서 더블류 김볼

최 육환

고문 위원회

교내 연락 책임자, 제이 토마스 화이언스

번역 및 배부 책임자, 존 이 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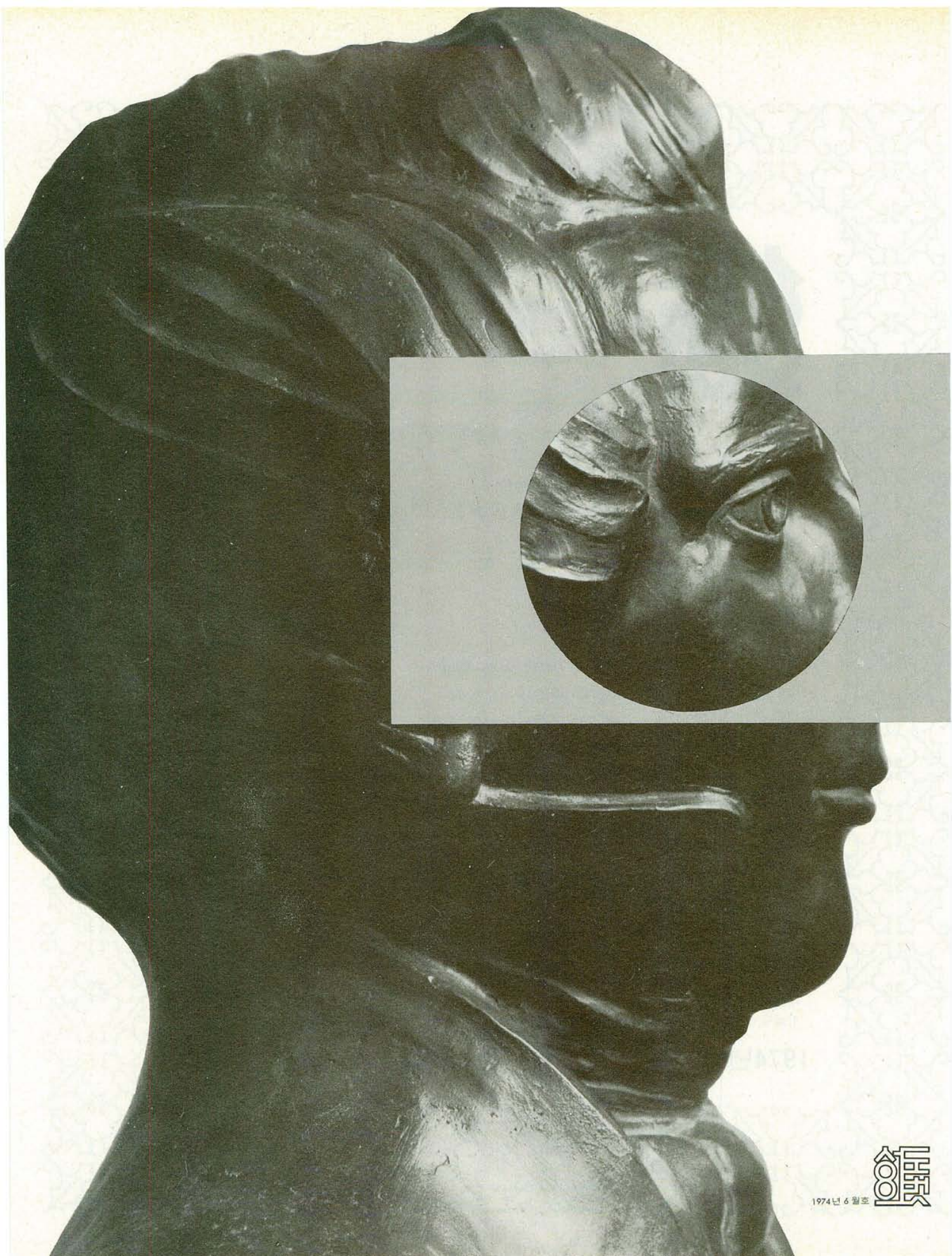
교회 잡지 책임자, 도일 엘 그린

교육자료 책임자, 다니엘 에이치 루드로우

정가 1권 100원 1년분(송료포함)국내 800원

국의 선박 5불 항공 7불

1974년 6월호 성도의 벗 제10권 제6호



1974년 6월호

한글

요셉 스미스의 위대성과 놀랄만한 시현

제리 시 라운디 글
니나 그로버 그림

요셉 스미스를 이해하려면 그의 영적, 신체적인 특성을 알아야 한다. 예언자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터웠던 팔리 피프렛장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요셉 스미스 대관장님은 건강하고 강인하며 활동적인 사람이었다. 피부는 희고 머리는 밝은 빛이었으며, 눈은 푸르고 얼굴에는 수염이 많지 않았다. 결코 피곤을 모르는 듯한 눈은 무엇에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온화하고 다정했으며, 예지와 자애심이 넘쳐 있었다. 가식없는 미소, 즐거움, 긴장이나 위태함으로부터 해방된 모습이 한데 섞인 모습이었다. 그의 눈에는 인간의 가슴을 꿰뚫어 온 세계를 이해하는 듯한 통찰력과 단호함이 있었다.

“그의 성품은 대범하고 독립심이 강했으며, 행동에는 꾸밈이 없었다. 꾸밈을 때는 불같이 꾸밈으나 그의 너그러운 마음은 대양처럼 넓었다. 그의 예지는 무한했으며 자신의 독특한 웅변술은 비록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하여 세련되거나 부드럽지는 못했으나 어떠한 주제를 택하든지 간결하게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었다. 그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가운데 교화시켰다. 그의 말을 지루하게 듣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회중이 비가

오나 해가 따가우나, 추우나 바람이 불거나 몇시간이고 그의 말을 들으면서 웃다가 울다가 하던 것을 여러 차례 보았다. 그를 가장 미워하는 적까지도 일단 그의 말을 듣게 되면 일반적으로 자리를 뜨지 못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는 다니엘의 성품과 고레스의 성품이 잘 조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니엘의 재능, 지혜, 헌신이 고레스의 대담성, 용기, 관대함, 인내, 극기와 하나로 조화를 이루었다. 만일 그가 성숙한 인간이 될 때까지 순교의 운명을 맞지 않았더라면 그는 여러 면에서 세상을 개혁시킬 능력과 힘을 부여받게 되었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후세에 보다 빛나고 영광스럽게 전해졌을 것임에 틀림없다.”(역사 기록 제7권 [1888년 1월] 575-576 페이지)

아담은 지구상에 존재했던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첫 회원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교성 107:3)를 따른 첫째 대제사였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일의 마지막 세대의 자녀까지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르칠 열쇠를 위임받았다. 지금까지 나타났던, 또는 앞으로 나타날 그리스도의 복

음에 관한 계시는 모두 아담의 권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예언자 요셉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아담은 때가 찬 경륜의 시기의 열쇠를 쥐고 있으니, 이는 곧 태초로부터 그리스도 때까지 그리스도의 때부터 앞으로 일어날 경륜의 마지막까지의 모든 경륜의 시대를 말한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테저렛 서적사, 1961] 167-168페이지)

그는 또한 이 지상에 나타나는 모든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원리는 아담의 권능으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책)

이 원리를 쉽게 풀이한다면, 하늘로부터 신권의 열쇠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곧 아담의 지시하에 회복된 것이라는 뜻이다. 침례 요한이 아론 신권을 회복하였을 때, 그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지시하에 움직였다. 그러나 이들은 아담의 지시하에 움직였던 것이다. 교리와 성약 128편은 복음의 회복에 대하여 말해 주고 있는데 이곳에서 예언자는 새로운 사실 몇가지를 기록하였다. 20절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거듭 이르거니와 우리가 무엇을 듣느뇨? 이는 곧 구모라에서 나오는 즐거운 소식이라. 하늘에

서 온 천사 모로나이가 못 예언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소리니 곧 계시될 책이로다. 그 책을 증거하는 세 사람의 견증자가 선언하는 세베카군 페이지의 광야에서 나는 주의 음성이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 악마를 간파한 사스케하나 강변의 미가엘의 음성이요, 사스케하나군 하모니와 브름군 콜스빌 사이의 광야에 있는 사스케하나 강변에서 왕국의 열쇠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지녔음을 몸소 선언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음성이로다.”

이 성구에 보면,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말한 미가엘은 아담이었으며,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악마를 물리치기 위하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벨기세텍 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방문했을 때 아담도 그곳에 있었다.

아담은 복음 계획의 시작이었으며 복음의 모든 경륜의 시기를 관리하고, 그리스도가 온 인류에게 영광의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시기 전에 열릴 아담—온다이—아만에서의 큰 대회에 있게 된다. 인류의 크고 작은 일에 참여했던 모든 예언자는 각기 그의 아버지 아담에게 성과를 보고하며, 아담은 이들을 대표하여 구세주께 보고한다. 요셉 스미스는 텍함을 받아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이끌어 나갈 사람이므로 아담의 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언자가 지녔던 열쇠를 받을 수 있는 예언자였다.

요셉 스미스는 이 중요한 부름에 예임되었다. 요셉 스미스의 다음과 같은 말을 미루어 생각하면 그는 이미 이 예임에 대하여 알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형제여

러분,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신성 모독이라고 말할 것이며 여러분 중에는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사람까지도 있을 것입니다.”(울슨 에프 휘트니, 히버 시 캄볼의 생애, 322 페이지)



아들을 소개해 주는 특권까지를 누리게 되었다. 이것에 관하여 조셉 필딩 스미스 대판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계시는 구약의 여호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려졌다. 모든 경전에서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이란 아브라함과 에녹과 노아와 모세와 다른 예언자와 이야기했던 여호와를 지칭한다.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번도 인간과 직접으로 대화한 적이 없었으며, 그의 아들을 소개하고 증거했을 때 예는 한번도 나타난 적이 없다.”(구원의 교리[북크래프트사; 1954], 제1권 27페이지)

14세의 이 소년은 자신의 큰 신앙으로 말미암아 경전에 기록되어 온 바 위대한 시현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된 것이었다. 이분은 고대 예언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위대하신 여호와 만을 뵈는 특권을 누린 것이 아니라, 엘로힘이라고 알려진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앞에 내려와 그의

그러나 첫번째 시현은 요셉이 38년이라는 짧은 생애동안 받기로 되어 있는 장막(교성 67:10) 넘어로부터의 방문의 시초에 불과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의 방문을 받은 지 4년 후에, 요셉은 고대 미대륙에 살고 있던 모로나이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 1829년 5월 15일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또 다른 예언자, 침례 요한의 방문을 받고 아론 신권을 부여받았으며, 그후 1개월도 못되어 예수 당시의 사도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방문으로 벨기세텍 신권을 부여받았다.

이때에 바로 아담이 임재하여 신권 부여를 방해하려는 악마를

멀리 내쫓은 일이 일어났다.

커틀랜드 신전의 완성, 헌납으로 주님은 복음에 관한 다른 열쇠를 회복할 장소를 갖게 되신 것이다. 1836년 4월 3일 그리스도는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를 방문하여 신전을 받아들였다.

또 다른 고대 예언자 세 분이 나타나 복음의 또 다른 열쇠를 회복시켜 주었다. 조셉 필딩 스미스는 노아라고 말하는(복음 질문에 대한 응답[데저렛 서적사, 1957] 제 3권 138페이지) 위대한 예언자 일라이어스가 나타나 그들의 머리 위에 아브라함의 경륜의 열쇠, 다시 말하면, 브르스 알 맥콩키가 물몬 교리에서 말하고 있듯이 영원한 결혼과 복수 결혼에 대한 열쇠를 부여했다. 남편과 아내가 영원히 결합될 수 있다는 약속이 다시 한번 지상에 주어졌다.

일라이어스의 방문이 있는 후, 이스라엘의 자녀를 속박에서 구출한 위대한 예언자 모세가 요셉과 올리버에게 나타나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집합의 열쇠와 북반구에 있는 나라에서 10지파를 이끌어 올 열쇠를 부여하였다. 요셉은 말일에 하나님의 선민을 모으기 위하여 온 세계에 선교사를 보낼 권능을 가지게 되었다.

모세가 떠나자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들려 올라 간 엘리야가 나타나, 아내를 남편에게, 남편을 아내에게, 자녀를 아비에게 인봉하여 온 인류를 아담에게 연결하게 하는 인봉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하였다. 영원한 결혼의 열쇠를 부여한 분은, 일라이어스였으나 인봉이라든가 그외의 여러 복음 의식의 열쇠는 엘리야가 부여하였다. 이 열쇠로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요셉은 그가 가진 권능으로 장막을 넘어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지상에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죽은 사랑하는 조상을 위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 주는 대리 의식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여러분은 요셉 스미스가 지닌 사명의 위대성을 알 수 있겠는가? 다른 예언자들은 복음의 열쇠 중 몇가지만을 쥐고 있었다. 그러나 요셉 스미스는 지상에 존재했던 모든 열쇠를 받았다.

그당시 요셉 스미스는 장막 넘어 보기를 거의 하루의 일과처럼 하였다. 요셉과 시드니 리그돈이

오하이오주 하이람에 있는 아버지 존슨의 집에 거하면서, 교리와 성약 76편으로 알려진 계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에 익숙해진 그는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했을 때나 (모세서 1:9-10), 그가 첫 번째 시현을 받았을 때처럼 땅에 쓰러지는 일은 없었다. 사실, 이 사건을 통하여 요셉 스미스의 성격상의 일면을 볼 수 있다. 이 시현이 끝났을 때 시드니는 기진하여 의자에 누워 있어야 했다. 시드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면서 요셉은 미소를 띠고 이렇게 말했다. “시드니 형제는 아직 나처럼 익숙하지는 못하군요.”(주버나일 인스



트락터 27권 [1892년 5월 15일] 303-304페이지)

모로나이 천사가 요셉 스미스를 첫 번째로 방문했던 때는 1823년 9월 21일이었다. 이 첫 번째 방문은 4년에 걸쳐 이루어진 사제 관계의 시초로서, 교육받지 못한 농촌 소년을 하나님의 예언자로서의 직분에게까지 이끌게 되었다. 젊은 예언자가 학교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영원의 대학을 4년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학식있는 자에게서 교육을 받았던 것이다.

모로나이 천사의 첫 번째 방문에서보다 반복의 원리를 잘 보여 준 예는 없을 것이다. 천사는 하루 밤 동안 세 번 나타나 요셉에게 금

판과 물문경의 출현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었다. 다음날 모로나이는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 들에서 일할 때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구모라 언덕에를 가 보라고 하였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요셉은 금판 상자를 꺼낼 허락은 얻지 못했으나 금판을 볼 수는 있었다. 이상과 같이 천사가 4번 방문하면서 천사는 꼭 같은 것을 거듭 가르쳐 주었다.

4년 간에 걸친 연수 기간 동안 요셉은 모로나이 천사에게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지시를 받았다. 조지 큐 캐논은 요셉이 끊임없이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존 웨트위스에게 보내는 편지에 요셉은 다음과 같이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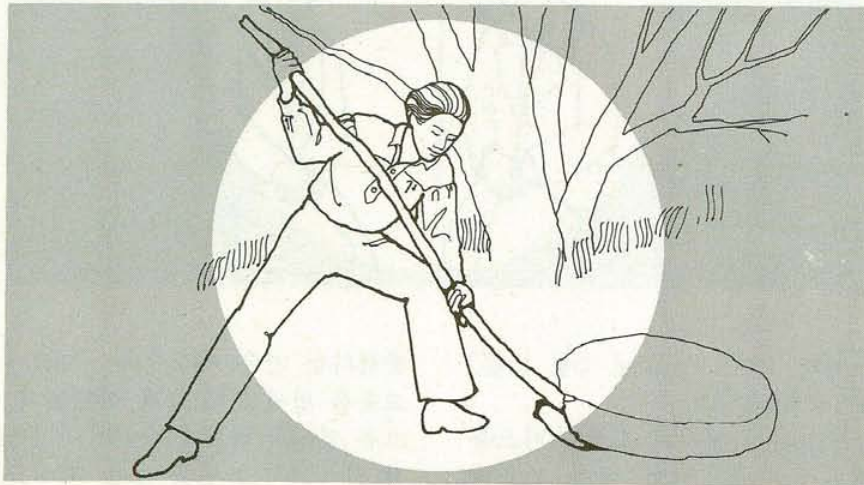
“마지막 날에 일어날 위대하고

영광스런 사건을 알려 주기 위하여 여러 차례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한 후, 1827년 9월 22일 아침, 주님의 천사는 성스러운 기록을 내 손에 넘겨 주었습니다.”(교회정사 제4권 537페이지)

요셉 스미스가 처음으로 구모라 언덕에 올라가 판을 보고는 이를 집에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심지어는 그는 그러한 정도의 금판으로 할 수 있는 일까지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 이 젊은 예언자를 강하게 만들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가 신앙을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반대로 신앙을 잃을 때 어떠한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시현으로 보여 주었다. 요셉이 천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을 때를 올리버 카우드리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

지 세력을 알게 되리니 사악한 것의 영향을 받거나 그것에 넘어가지 않으리라.”(메신저 앤드 애드보케이트 제2권 제1호 [1835년 10월] 198페이지)

모로나이의 방문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음 해인 1824년 같은 달 같은 날에 있었던 일이었다. 그때 요셉의 나이는 18세였다. 요셉 자신은 이 방문에 관하여 특별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요셉의 어머니는 아들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이날에 재미있는 사실을 기록하였다. 예언자는 판을 집에 가져 오겠다는 마음으로 언덕을 향해 떠났으며, 실제로는 판을 꺼내 가도 좋다는 허락도 받았었다고 어머니는 기록하였다. 예언자는 판을 얻기에 필요한 것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뿐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한 요구 조건 중에는 판을 안전한 장소에 놓을 때까지 판을 내려 놓거나 손에서 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요셉이 판을 들고 돌아섰을 때, 혹시 상자 속에 남은 것이 있거나 않은가를 확인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판을 땅에 내려 놓고 돌아가 보았다. 다시 돌아와 보니 판이 없어졌었다. 값진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에 있는 사람들이 젊은이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크게 놀라 요셉은 기도드리기 시작했다. 기도드리자 천사가 나타나 그의 배만을 꾸짖었다. 다시 허락을 얻어 돌을 들춰보니 판이 그 밑에 숨겨져 있었다. 그때까지도 요셉은 판을 가져 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의 설명을 빌어 본다.



다. “... 하늘이 열리고 주의 영광이 주위에 빛나며 그의 머리 위에 머물렀다. 요셉이 일어나 바라보자, 천사는 보라고 말했다. 쳐다보니 암흑의 왕자인 사람이 수많

은 추종자에 둘러 싸여 그의 앞을 거쳐 지나갔다. 천사가 말하기를 ‘네게 보인 모든 것, 즉 선과 악, 성스러운 것과 불결한 것, 하나님의 영광과 암흑의 권세 등 두가

“그는 곧 팔을 내밀어 판을 집으려 했으나 큰 힘에 의하여 땅에 떨어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천사는 없었으며, 그는 일어나 슬픔과 낙담으로 울며 집으로 돌아 왔다” (루시 맥 스미스, 요셉 스미스의 생애, [북크래프트, 1958] 84페이지)

한번은 아버지 요셉 스미스 일세가 요셉을 그리 멀지 않은 일터로 심부름을 보냈다. 집에 돌아 온 시간이 늦은 관계로 아버지는 그 이유를 물었다. 이에 어린 예언자는 “생전 처음 심하게 야단 맞았어요.”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도대체 누가 야단칠 수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저를 야단친 것이었어요. 판이 숨겨져 있는 구모라 언덕을 지나 오다가 천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제가 주님의 사업을 하는 데에 전념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기록을 세상에 내놓을 때가 다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에 온 몸을 바쳐야 한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쓴 요셉 스미스의 생애, 99-101페이지)

4년 동안에 걸친 모로나이 천사와 다른 예언자의 방문은 예언자를 가르치고 사명 완수에 필요한 준비를 완전히 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1827년도 상당히 지나갈 무렵 요셉은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 번역 작업에 필요한 사항과 판을 다루는 방법을 모두 알게 되었다.

요셉 스미스의 사명 완수에 필요한 준비를 시키기 위하여 그를 방문한 사람은 수없이 많았다.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모로나이, 침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세, 일라이어스(노아), 라파엘(이분이 누구인지는 분명치 않다.) 그리고 엘리야 등의 방문을 받았다. 존 테일러는 요셉 스미스는 주님과 대화했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노아, 아담, 셋, 에녹, 예수, 하나님 아버지, 아시아 대륙에 살았던 사도와 미대륙에 살았던 사도들과도 교통하였다.” (설교집 제 21권 94페이지)고 말하고 있다.

웬트워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요셉 스미스는 1827년 9월 22일 아침 판을 받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여러 차례의 방문을 받았다고 적었다. 존 테일러는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로 택함을 받고는 “물론, 모로나이, 니파이 등의 고대 미대륙에 살고

있던 고대 예언자들”이 그를 방문하여 복음의 원리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했다. (설교집 제17권 374페이지)

예언자의 어머니는 자신의 저서에 저녁이 되면 부엌 식탁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고대 니파이인과 레이맨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느라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고 기록했다. 요셉이 역사와 문화와 종교를 얼마나 생생하고 자세하게 들려 주었는지 마치 그가 일생을 고대인들과 생활이라도 했던 것같이 느껴졌다고 어머니는 말했다. 예언자는 고대 니파이인과 레이맨인의 역사를 일련의 시현으로 보았음에 틀림없었다.

요셉은 사도 바울에 관하여 훌륭하게 묘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울이 그를 방문했음을 말해



준다.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80페이지) 한번은 요셉이 그의 동생 알빈을 아담과 셋에 비교하면서 그와 매우 닮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교회정사 제5권 347페이지)

그가 예언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은 1834년에 발생한 일로 더욱 분명해진다. 예언자는 폭도에게 빼앗긴 토지와 가옥을 다시 찾으려는 성도들을 도와 미주리주로 시온의 진영을

이끌어 가고 있었다. 어느날 예언자가 그들 앞에 서서 걸어 가고 있을 때 낫선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분이 계시자 요한으로 잃어버린 열 지파를 방문하던 길에 만났던 것이라고 말했다. (올리버 보드맨 헌팅의 일기, 브리검 영 대학교 도서관에 타자본으로 비치되어 있음, 1847-1900, 제2부 162페이지.)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그의 모든 시간과 재산과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의 사업에 종사하겠다고 굳게 약속하였다. 어려움이 닥쳐 올 때라도 그는 주님께 봉사하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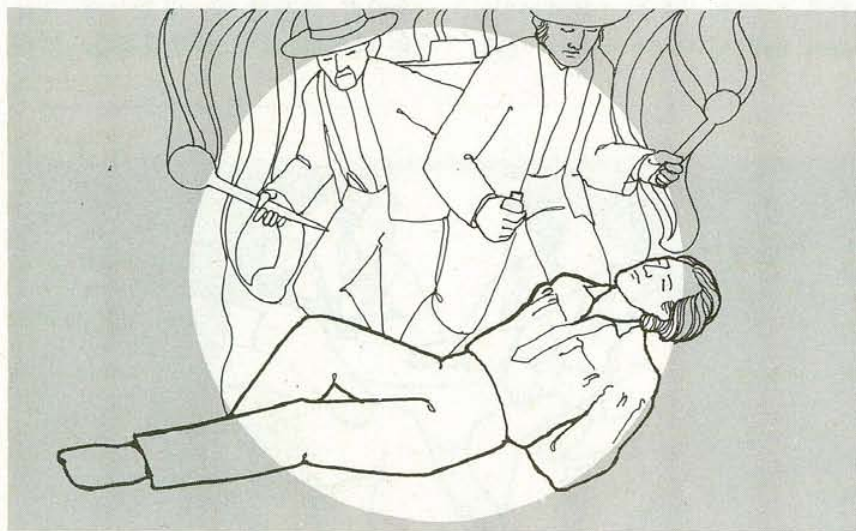
노라고 약속했다. 요셉이 오하이오주 하이람에 있는 존슨의 집에 기거하고 있을 때, 아내 엠마는 쌍둥이를 낳았는데 분만한 그날 죽었다. 같은 날 존 머다크의 아내는 쌍둥이를 낳았는데 머다크 부인이 출산하다 죽었다. 요셉과 엠마는 머다크 형제에게 그의 쌍둥이를 입양할 수 있는지를 물었는데 그는 캐히 승낙했다.

쌍둥이가 생후 11개월 되었을 때, 홍역을 앓았으므로 스미스가 죽은 며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자기가 아기를 돌볼테니 침실에 올라 가서 쉬라고 청했다. 한 밤중이 되자 요셉은 바퀴달린 냇

를 죽일 것인가 살려 둘 것인가를 의논하였고 죽이지 않을 것을 결정하였다. 마침내 한 명이 “너석의 입에 타르를 칠하자”고 외쳤다. 이 제안에 동조하여 그들은 그의 입에 타르를 넣으려 했다. 다음에 그들은 그의 치아 사이에 독약을 넣으려 했으나, 그는 이를 꼭 다물었기 때문에 병만 깨지고 말았다. 그의 입에 타르와 독약을 넣으려던 것이 실패로 끝나자 폭도 중의 한 명이 그를 넘어뜨리고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언자의 옷을 깃만 제외하고 갈기 갈기 찢고, “...성신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임한다.” 고 말하면서 미친 고양이처럼 활쫘었다. 그리고는 뜨거운 타르를 몸에 붓고 깃털로 만든 매트리스 위에 굴리고는 죽게 내버려 두었다.

예언자는 의식을 회복하자 집으로 돌아 왔다. 온몸에 타르와 깃털을 묻히고 집으로 돌아 오는 그를 보자 아내 엠마는 기절했다. 그날 밤새도록 그는 몸에 묻은 타르와 깃털을 제거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의사이며 예언자의 보좌였던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교성 64:21 참조)가 이 가슴 아픈 일을 맡아 간호하였다. 때때로 큰 살점이 타르에 묻어 떨어져 나올 때도 있었다.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으므로 예언자는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하셨다.

예언자가 시간과 온 정성을 다 바쳐서 주를 위해 봉사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언자의 생애를 연구하기란 어렵다. ㉔



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성난 폭도들이 그를 바닥에 끌면서 문을 넘어 서고 있었던 때였다. “너석의 발을 바닥에 대지 못하게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릴 때려 눕힐거야.” 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었다. 그들은 요셉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강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었다.

그들은 그를 끌고 과수원을 지났다. 그렇게 할 때 요셉은 시드니 리그돈이 거의 죽은 것처럼 땅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폭도들은 시드니 리그돈이 실신할 때까지 그의 머리를 얼은 땅에 부딪치게 하며 집에서부터 그의 발을 잡고 질질 끌어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폭도들은 멈추어 서서는 예언자

발견

말일성도에게 흥미를 이끌만한 사실

여행
1974년 6월호

물레크의 항해 추정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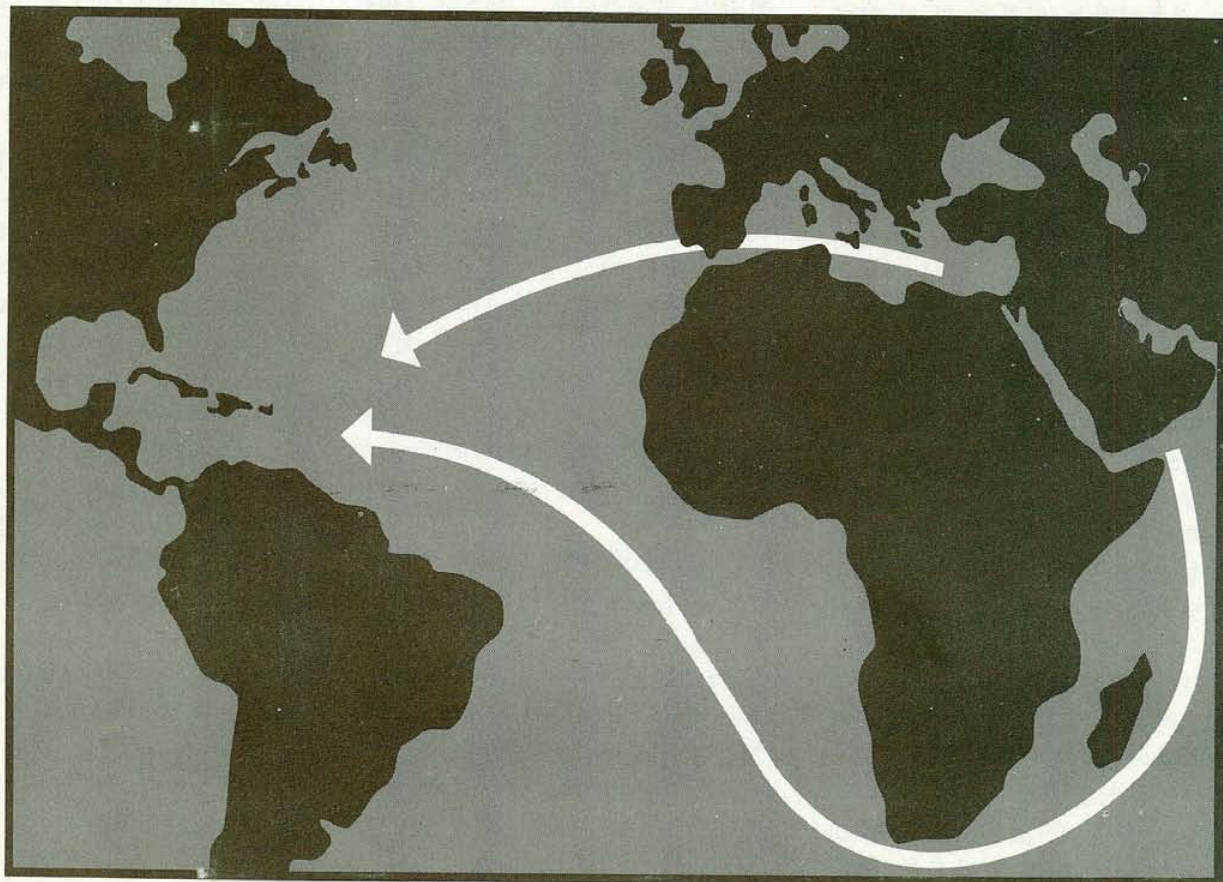
물레크와 그의 무리들이 물몬경의 “약속의 땅”인 신대륙으로 여행할 때 거쳤으리라고 생각되는 두 가지의 여행로가 브리감 영 대학교의 로스 터 크리스찬슨 박사와 그 아내에 의하여 발표되었다. 크리스찬슨 박사는 고고학자요 인류학자이며, 그의

아내는 고고학을 연구하는 대학원생이다.

물몬경은 물레크인이 기원전 6세기에 대서양을 횡단하여 서부로 갔는지, 또는 태평양을 횡단하여 동부로 갔는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물몬경에는 분명히 그들이 “북쪽 지방”에 상륙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크리스찬슨 부부는 대서양 항로를 따라 이주했을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대서양의 해류와 그외의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한 크리스찬슨 부부는 이들 초기 여행자들이 택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두 개의 항로를 찾았다. 하나는 지중해와 북대서양 항로이며, 다른 하나는 아프리카를 둘러 남대서양을 횡단하는 항로이다.

기원전 6세기경은 지중해와 그 이외의 지역에서 탐험, 상업, 식민지 활동이 한창이던 때였다. 예



루살렘의 멸망과 물레크와 그의 백성과 압박받던 다른 사람들의 이동은 이와 같은 이주에 박차를 가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당시 이스라엘의 잔류민들은 사이프러스, 크레테, 리비아, 카르타고 등지에 정착했으며, 전설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미리 이러한 곳에 이스라엘의 식민지가 이룩되었다고도 전해진다. 또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과 페니키아인 사이에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전해 내려가고 있다. 또 하나의 가설은 물레크와 함께 미대륙에 정착한 사람들의 일부가 페니키아인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물몬경에 언급된 시돈강이고대 페니키아의 수도의 명칭과 같은 시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중해를 횡단하는 페니키아 선원들과 히브리의 식민단원들의 도움으로 물레크와 그 백성들은 지중해를 건너 대서양에 다다랐을 것이다. 대서양에 일단 들어서자, 물레크인들은 아프리카의 서해안을 따라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남서쪽으로 흐르는 강한 급류를 만나게 되었을 것이며 여기서 대서양을 횡단하여 서쪽으로 방향을 잡았을 것이고, 결국 배는 서인도제도에 도착하게 되었을 것이다.

크리스찬슨 부부는 물레크인이 이상과 같은 직접적인 항로로 대서양을 횡단하여 여행하였으리라고 믿는 반면,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 남대서양을 횡단하여 여행했으리라는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마다가스칼 주변의 인도양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는 이 강한 해류는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

남쪽으로 흐르며, 그곳에서 방향을 서쪽으로 바꾸어 남대서양을 거쳐 브라질 동부의 북부 지점에 이르러서, 계속 북상하여 북대서양에서 오는 해류와 남미 해안에서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만일 홍해에서 배를 타고 떠나 아프리카의 동해안 가까이로 항로를 정하여, 마다가스칼 근해에 이르렀다면, 이와 같은 경로로 서인도제도와 멕시코만에 닿을 수도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로는 전자의 지중해 항로보다 두 배로 길지만 오히려 가능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집트의 제왕 네오 2세의 명을 받은 페니키아 선원들은 주전 600년경에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 여행했음이 밝혀졌는데, 이것은 1498년에 일주한 바스코 다 가마* 보다도 2100년 앞선 일이었다.

또한 페니키아의 선원이 대서양을 횡단하여 미대륙으로 항해했던 실제의 사건이 물레크인의 항해 여행과 시기를 같이 하여 있었으며, 이들 역시 홍해에서부터 출항하여 희망봉을 돌아 남대서양을 횡단하여 현재의 브라질인 남미에 이르렀다. 브라질의 파라이바에서 발견된 고대 페니키아 문자는 그 연대를 주전 534년에서 531년 사이로 말하고 있다.

이사야서의 기록

이사야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기록인지, 아니면 각기 다른 시대를 산 여러 예언자들의 기록의 모음인지는 수 세기에 걸쳐 성경 학자들간에 논란이 되어 왔다.

물몬경은 중요한 예언서인 이사야서가 단 한 사람의 기록임을 밝

*포르투갈 항해사(1460-1524)

히 말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 때문에 비물몬 학자들은 물몬경에 대하여 공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물몬경의 언어에 관한 컴퓨터 연구는 이사야서가 이사야 혼자서 기록임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것을 조사하기로 제안한 사람은 구약 성경 학자이며 브리감 영 대학교 연구 조사 협회의 래리 엘 아담스 박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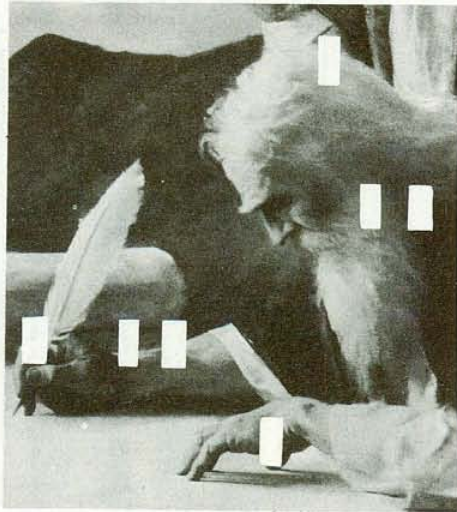
35명 이상의 연구 조사원, 고문 및 보조원들은 300개의 컴퓨터 테이프를 사용하여 수백개의 언어를 분석했다.

아담스 박사는 과거의 이사야서 연구는 단지 소수의 언어만을 조사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릇된 결론을 얻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브리감 영 대학교의 집약적이고 복잡한 연구 체제로 몇몇 학자들은 과거의 조사를 재평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들은 이사야서의 형식을 구약의 다른 책 11권과 비교하고 있다. 이들이 다루고 있는 것은 이사야서 전권과, 아모스,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미가, 하박국, 스가랴, 다니엘, 에스라, 말라기, 그리고 느헤미야 등의 여러 부분이다.

히브리 원전에서 이사야서를 빼내어 약호를 매기고 컴퓨터 테이프에 넣어 통계 분석한다.

가장 중요한 연구로 여러 작가들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형태의 변화와 한 작가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형태의 변화를 비교 조사하는 것이 있다.

이사야서가 단일 저자의 작품임을 확신하게 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들 수 있다.



바퀴달린 차량이 없으면 낙타를 타라

물론경은 바퀴달린 교통 수단과 말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미대륙에 상륙했을 때 그들은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러나 가장 효율적인 교통 수단으로 바퀴달린 도구가 사용되었다는 예를 또 다른 문화에서 엿볼 수 있다.

수레, 마차, 사륜마차 등은 수백년전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 사람을 나르고 짐을 운반하는 최초의 가장 흔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시대로부터 모든 이러한 교통 수단은 낙타로 대체되었다.

주후 5세기 말 경에는 중앙 아시아의 교통 수단이 모두 낙타로 바뀌게 되었다. 짐차로 이슬람교가 전파됨에 따라 스페인에서까지도 낙타가 최상의 교통 수단이 되었다.

이 사실은 하바드 대학교 중동 연구 센터의 역사 조교수인 리차드 더블류 뷰리엣 박사에 의하여 알려졌다. 그의 연구 논문은 미국 석유 회사의 잡지인 아람코월드 매거진에 실려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낙타와 사막을 동시에 연상하나, 뷰리엣 박사는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몇백년 전만 해도 유목민들은 낙타를 가족으로 길렀다고 믿고 있다.

군력의 수단으로 유목민들은 이웃 나라에 낙타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상인들의 교통 수단을 차량에서 낙타로 바꾸게 한 것은 군력이 아니라 경제였다.

낙타에 수레를 달아 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자 낙타를 대신하여 나온 것이 황소였다. 그러나 황소에게는 먹이가 많이 들었으며 수레를 만들려면 진귀한 나무가 필요했다.

초기의 경제학자들은 낙타가 다른 교통 수단보다 약 20퍼센트나 값이 싸게 든다고 계산했다. 이 정보에 준하여 로마의 황제 디오 클레티아누스는 3세기 경에 가격 동결법을 정해 낙타 상인들에게 큰 이로움을 가져다 주었다.

짐차로 수레, 마차, 사륜마차와 도로마져 사라져 버렸다.

낙타가 수백년 동안 “길을 지배하였다.” 터어키의 일부 마을에서



는 북방으로부터 온 상인들의 영향 때문에 여전히 낙타에 대항하는 강력한 경쟁자로 수레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사람을 수송하는 교통 수단으로 마차가 낙타를 대신하게 된 것은 유럽의 물결이 밀어닥친 후 부터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화물의 운송 수단으로 낙타가 가장 일반적인 것이었다.

물론 현재까지도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낙타가 가장 중요한 교통 수단이 되지만, 역시 교통 수단에서 낙타를 몰아 낸 것은 자동차의 발달이라고 뷰리엣 박사는 말한다.

짐차로 낙타는 야만 종족의 식용육으로나 사용될 것이며, 결국은 세계의 동물원에서나 그 존재를 찾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1. 이사야야서와 다른 구약의 책과 비교해 볼 때 이사야서에서 현저한 형식상 통일성을 볼 수 있다.

2. 이사야서는 다른 책보다 히브리어의 전치사, 접속사의 사용이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3. 주요 문단이 이사야서 전체에서 여러번 반복되고 있다. 사실상, 이사야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반복의 비율은 다른 어느 서적들보다도 훨씬 그 도가 높다.

더우기, 여러 사람에 의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되는 부분은 다른 어떤 구약 전서의 내용보다도 그 형식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이 컴퓨터에 의하여 규명되었다.

아담스 박사의 연구 결과는 이사야서가 기록된 이래 약간의 수정이 가해졌을 수도 있으리라는 가능성마저 배제하지는 않는다.

아담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약간의 삭제 또는 첨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작가의 전체적인 형식은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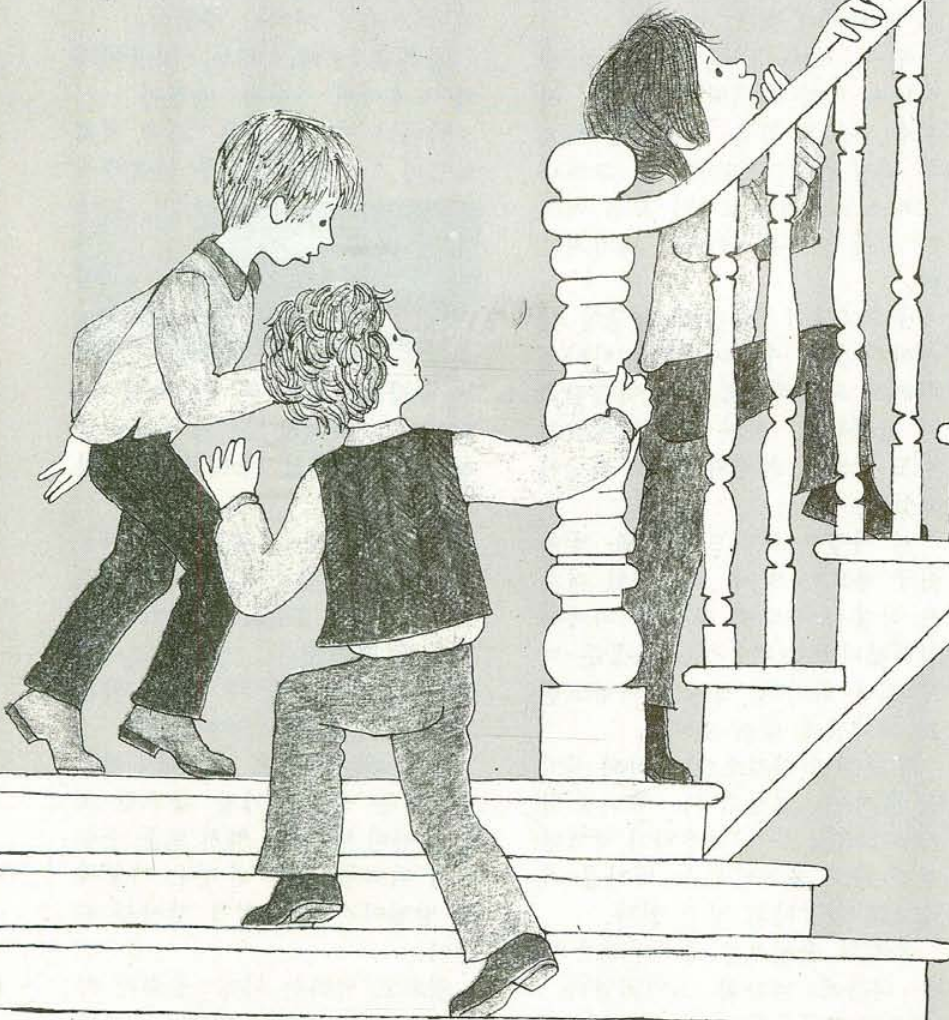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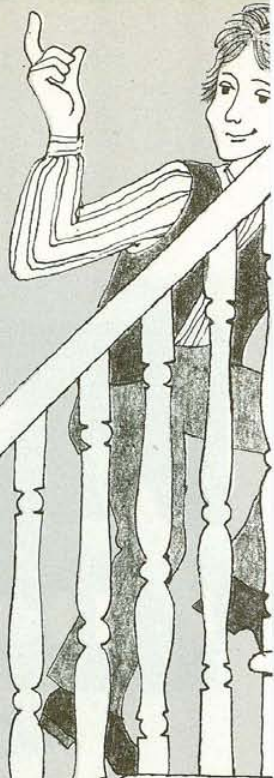
나부의 미이라

더블류 랄프 오덤

솔로몬 헤일의 일기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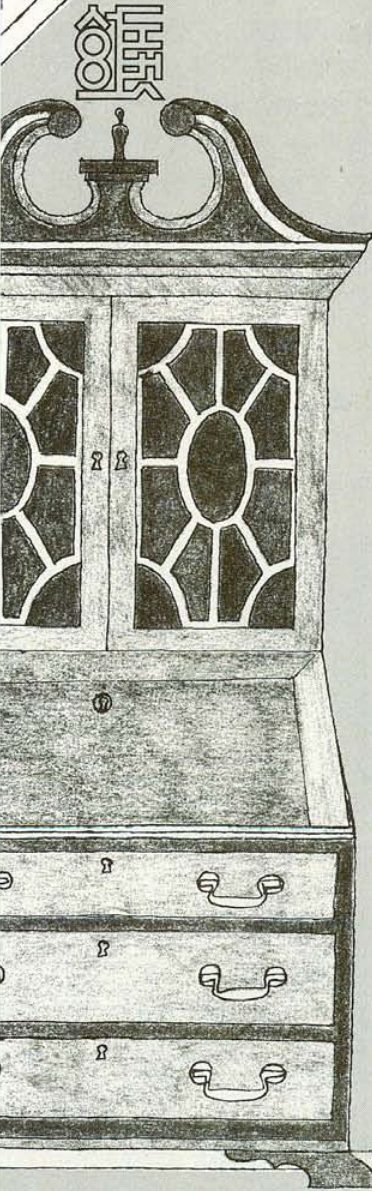
필리스 록 그림



1835

년 7월 3일
마이클 에이
치 쉐들러씨는
4구의 이집트미
이라를 커틀랜드에 가
져 왔다. 미이라와 함
께 몇개의 파피루스 두
루말이를 가지고 온 쉐들
러씨는 이 문서를 요셉 스미
스가 번역할 수 있을 지도 모른
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다. 어느
성도가 미이라와 두루말이를 구입
했으며, 예언자가 이를 번역하기 시
작하였다. 그는 번역하면서 그 중의 하
나가 아브라함이 기록한 두루말이라
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값진 진주의
아브라함서 머릿말을 참조한다.)

974년 6 월호



다음은 솔로몬 헤일의 일기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그는 이 사건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집트의 미이라를 예언자가 입수했을 당시 나부에서 살고 있던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조카이다.

요셉 스미스의 조카인 나는 나부 멘션 하우스에 관한 여러 가지 신비로운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었다. 그 곳과 그 때를 회상하면 내 나이 또래의 동네 어린이들에게 들려 주던 농담이 떠오른다.

나의 아버지께서 서재에 미이라를 두고 있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미이라가 도대체 무엇이며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약간 지식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다른 사람을 경멸하였으며, 나도 짓궂은 유우머 기질로 나부의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을 골려 주고는 큰 기쁨을 얻었다. 나는 미이라를 보기도 했지만 그것이 전혀 해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나는 네다섯명의 어린 아이를 멘션 하우스 앞에 세워 놓고는 잠시 후 뒷층에서 이상하고 기괴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것이 몸의 반은 사자이고 반은 사람의 모습을 한 괴물이나 피라밋이 있던 시대에 있었던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잠자고 있는 미이라의 영혼이 깨지 않도록 살금살금 뒷층으로 올라 갔다.

나는 미이라가 들어 있는 옷장 앞에 아이들을 일렬로 세워 놓고는 엄숙하게 검은 휘장에 손을 대었다.

나는 셋까지 천천히 세고는 장막을 째싸게 걷어 젖혀, 먼지에 덮히고 수축되어 쭈그러진 이집트인 미이라를 보고 질려 버린 어린 아이들이 층계 아래로 뛰어 내려가는 모습을 신이

나서 지켜 보았다.

후에 내가 아이들을 길에서 만날 때는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뽐내면서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 한 번은 낡은 냅마를 뒤집어 쓰고는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이것이 바로 미이라의 심장을 찔던 자루로, 옷장에 있는 괴물을 젊게 만드는 요술 푸대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하루는 아버지 집 밖에서 멍청하게 보이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늘 하던 대로 설명을 늘어 놓은 다음 나는 그들을 예언자의 서재로 데리고 가서는 행동을 개시했다. 나는 그들이 보게 될 물건이 놀라운 것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 주려고 그들의 눈을 자세히 쳐다 보았다. 나는 나의 행동을 약간 변경하여 이집트의 주문과 같은 알 수 없는 말을 외워 보였다.

주문을 마치고 휘장을 걸었으나 그들의 반응에 오히려 내가 놀랐다. 아무도 소리를 지른다거나 달아 나지 않았으며 조그만 소녀까지도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 아이들이 놀라운 자세력을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누가 미이라를 치웠던가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보기는 보았다. 왜냐하면 다문 입을 크게 벌리고는 아무 소리도 없었으니까. 나는 옷장 구석을 휘둘러 보다가 아버지의 회중 시계 줄을 보았다.

예언자 요셉이 미이라가 있어야 할 곳에 서 계셨던 것이다. 나는 꾸짖으시리라고 생각한 아버지의 얼굴에서 화를 내는 기색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허죽이 웃고는 아이들을 이끌고 층계를 내려 왔다. 그후로는 나부의 미이라를 보지도 못했고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았다. ▣

PLuch

사도들의 생애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

제 데다이아 엠 그랜트



1974년 6월호

약 력

제 데다이아 엠 그랜트는 1816년 2월 21일 뉴욕주 원저에서 조수아 그랜트와 아타리아 하워드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17세 때 개종하여 1833년 3월 21일에 침례를 받았다.

그랜트 장로는 여러 곳에서 선교 사업을 했다. 그는 1853년에 첫 부름을 받았다.

그랜트 장로는 요셉 스미스, 시드니 리그돈,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의 안수례로 1835년 2월 28일에 칠십인으로 성임되었다. 그의 나이가 29세가 되던 1845년 12월 2일, 그는 칠십인의 초대 일곱 회장의 한 사람으로 성임되었다.

그랜트 장로는 1851년 솔트레이크시티의 초대 시장으로 선출되었다.

1852년 그는 유타 지역의 의회 연사로 선임되었다.

1854년 4월 7일, 제 데다이아 물간 그랜트 장로는 브리감 영 대관장에 의하여 사도로 성임되었다. 같은 날, 그는 영 대관장의 제2 보좌로 지지받았다. 그때 그의 나이는 38세였다.

제 데다이아 엠 그랜트 부대관장은 충성스런 하나님의 종이였다. 과로에 지친 그는 1856년 12월 1일, 40의 젊은 나이로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임종할 당시 후일에 대관장이 된 그의 아들 히버 제이 그랜트는 9세였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그랜트 부대관장의 장례식에서 그에 대한 극진한 찬사를 보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 데다이아는 25년간 교회 생활을 하였지만, 그 기간 동안 주님을 위하여 백년간의 봉사를 바쳤습니다.”

“우리 교회의 우두머리는 누구입니까?”

그랜트 장로에게 볼드윈이라 하는 한 유명한 침례교 목사가 토론을 청했다. 그랜트 형제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토론 장소는 토론을 청한 자신에 차있고 거만스런 그 상대자의 큰 교회였다. 볼드윈이라는 사람

은 태도로 상대방을 협박하고 억누르려 하는 사람인 것같이 느껴졌다. 토론 시간이 다가 오자 토론장은 모여든 인파로 가득 차게 되었다. 심판원이 선택되고 토론을 진행할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지자 그랜트 형제는 일어 서서 말했다. “볼드윈씨,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하십시오.” 볼드윈씨가 말했다. “버지니아주 남서부 침례교회에서 우두머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볼드윈씨는 준엄하게, 재빨리, “접니다”라고 대답했다. “아, 네” 그랜트 형제는 말했다. “상대할 만한 적수인가를 알아보려 했던 것입니다.” 볼드윈씨는 약간 당황한 빛을 보이더니 “그랜트씨, 버지니아주 남서부에서 당신 교회의 우두머리는 누구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그랜트 형제는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장내는 숙연해졌다. 이 영감의 대답은 자신만만해 하던 적수를 완전히 패배케 하였으며 하나님의 겸손한 종은 또 다시 승리하였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백지입니다”

그랜트 부대관장이 선교 사업을 하던 초기에, 그는

앤드류 잌슨, 말일성도 인명 백과사전(앤드류 잌슨 역사 회사, 1901년) 58페이지



* 레온 알 하트슨, 편찬자, 사도들의 생애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 솔트레이크시: 데저렛 출판사, 1973년 저자의 승인을 얻어 연재함.

곧잘 사람들로부터 어떤 주제에 관하여 설교를 들려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또 이에 응해 주었기 때문에 즉흥 연설가로서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럴 때마다 그가 어떻게 언제 그와 같은 훌륭한 말씀을 준비했을까 하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했다. 사람들의 이 같은 의문에 찬 질문에 그는 자기가 다른 목사들 처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물론 나는 진실된 복음을 읽었으며 내 마음속에 쌓아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설교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연구해 본 적은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준비를 하지 않고 그와 같이 훌륭하게 설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말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 사람들은 장소와 시간을 그에게 정해 주면서 그날 와서 그들이 선택한 주제에 관하여 말씀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그가 그 장소에 도착하면 설교할 제목을 주겠다고 제언했다. 그렇게 하여야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들의 이러한 제의도 받아 들였다. 장소는 버지니아주 테이즈웰군, 제퍼슨빌이었는데, 그곳에는 후에 국무성 장관이었던 존 비 프로이드를 위시한 여러 저명 인사들이 살던 곳이었다. 그곳의 재판소에서 모임을 갖기로 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을 때 장내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프로이드씨와 변호사 목사들이 앞 좌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랜트 장로가 걸어 들어와, 모임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시작되었다. 두 번째 찬송이 끝나자 미리 지명되어 있던 서기가 그랜트 장로에게 다가 가 종이(주제)를 건네 주었다. 그가 펴 보니, 아무 것도 적혀지 않은 백지였다. 전혀 놀라움의 기색도 없이 그는 청중 앞

에 섰다. “여러분, 저는 이 신자들께서 정해 주는 주제에 관하여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그 주제를 지금 받았습시다. 여러분이 제게 화를 내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정해 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약속했으니까요. 불평이 있으시다면 이 주제를 택한 사람들에게 하십시오. 저는 그 주제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주제를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좋아합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백지입니다. (이 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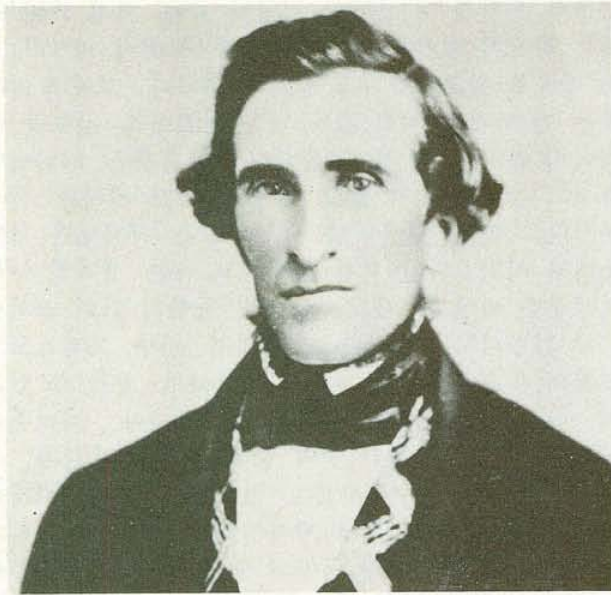
하면서 종이를 펴 보았다.) 밑에 앉아 제신 각계 종파의 지도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 것도 적혀 있지 않는 백지에서 설교를 만들어 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육체도 갖고 계시지 않고 감정도 갖고 계시지 않는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은 나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백지 상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예언자, 사도, 전도사 등등이 없는 교회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완전히 백지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것 역시 나의 주제와도 일치됩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시간과 공간의 영역 밖에 놓고 있습니다. 무의 장소에 천국은 위치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것도 나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백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청중들이 고백했던 신앙의 교리를 갈기 갈기 찢어냈으며, 나중에 강한 힘으로 복음의 원리를 선포하였다. 그는 “내가 주제에 맞게 설교했습니까? 이제 만족하셨습니까?”라고 질문하면서 말씀을 마쳤다.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프로이드씨가 뛰어 올라와서 “그랜트씨, 당신은 변호사가 되어야겠는데요”라고 말하고는 청중들에게 돌아 서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여러분은 방금 훌륭하고도 놀라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자, 그랜트씨의 의복을 한번 보십시오. 의투를 보세요. 팔꿈치가 거의 다 해졌습시다. 무릎도 거의 다 해졌습시다. 우리 돈을 걸어 의복을 마련해 드립시다.” 그가 자리에 앉자 또 다른 저명한 변호사가 일어나서 말했다. “저는 그랜트씨에 비하면 의투 소매자락 한쪽, 바지 다리 한쪽만 걸쳐도 분에 접습시다.” 남 감리교회에서 온 관리 장로에게 모자가 돌아갔을 때, 그는 ‘물론’에게는 돈을 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프로이드씨는 “내셔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스타씨가 “돌리십시오”라고 말했으며, 청중들로부터 함성이 쏟아져 나오자 평온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목사는 돈을 내야만 했다. 그는 모자를 들고 다니면서 현금을 모았는데 그곳에서 건혀진 돈은 그랜트 형제에게 훌륭한 의복과 말, 안장, 말고삐를 사기에도 충분하였다. 이 현금을 낸 사람 중에는 후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입교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이것은 백지 주제를 가지고 한 설교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결과였다.

“마가렛이예요”

히버 시 킴블이 들려준 이야기

지난 주 어느날 나는 그 [제테다이아 엠 그랜트]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며 나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다만 다정하게





악수만을 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애절한 정을 느꼈으며, 그를 일으켜 세워 악마를 물리치고 의를 안겨다 주게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용감했고 나 또한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였습니다. 나는 그의 폐에 힘을 주어 곧 쉽게 호흡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삼분이 지나자 그는 몸을 일으켜 세워, 자기가 본 것과 이해한 것 등을 약 한 시간 동안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그의 곁을 떠나 올 때 쯤에는 그가 지쳐 쓰러질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버 형제님, 나는 이를 동안 계속해서 영의 세계에 갔었습니다. 내게 닦았던 일들 중에서도 가장 두려웠던 것은 내가 다시 육체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의 질서와 통치란 놀라웠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나는 사람들의 의의 질서를 보았고, 여러 등급으로 나누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나의 시야를 가리는 장벽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등급과 질서에 따라 모든 남자와 여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무질서란 찾아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곳엔 죽음이나 암흑이나 혼돈이나 무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곳에는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많은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고, 모두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 하나를 차례로 이야기하면서, “정말 브리감 형제님이 수차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더군요”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브리감 형제가 가르친 것에 대한 간증이요, 나도 역시 그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영의 세계에서 의로운 자들이 함께 모인 것을 보았으며 그들 중에 악한 사람이라곤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제일 먼저 그에게 다가 왔습니다. 그는 그가 알던 사람들을 많이 만났으나 그가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은 그의 아내 캐롤라인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으며, 광야에서 죽은 아이를 안은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렛이예요. 늑대가 우리 아기를 잡아먹은 게 생각나세요? 하지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몇몇 가족에게서는 무엇인가가 결핍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 지상에서의 부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에게 요셉 스미스와 하이람과 아버지 스미스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시기 위해 먼저 떠나셨어요”라고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브리감과 그의 형제들이 성도들이 정착할 곳을 찾기 위하여 윈터 퀴터즈를 먼저 떠나 이곳(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했던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이야기했는데, 고대 솔로몬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부어 주셨고 그의 재능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금은 보화를 쏟아 부어 주셨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은 영의 세계에 있는 건물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원에 대하여 그랜트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훌륭한 정원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 있는 정원과 비교될 만한 것은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종류의 꽃을 보았으며, 한 줄기에서 50내지 100가지의 서로 다른 색의 꽃이 피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지상에는 여러 종류의 꽃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꽃은 모두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는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있을리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본 것에 대하여 이야기한 뒤, 의로운 영들이 모여 있는 영의 세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본 후 다시 육신의 세계로 돌아 가야 한다는 것이 몹시 싫었다고 말했습니다. 圖

*히버 시 킵블, “제메디아아 엠 그랜트의 추도문” 선교집 제4권 135-138페이지

올슨 프랫



1974년 6월호

약 전

올슨 프랫은 1811년 9월 19일, 뉴욕주 하트포드에서 제렛 프랫과 체리티 디킨슨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사도인 팔리 피 프랫의 동생이었다.

프랫장로는 1830년 9월 19일에 침례를 받았다. 그는 뉴욕주 페이에트에 살고 있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만나기 위하여 이백 마일을 여행해 가며 찾아왔다. 이 때에 그는 세 목격자와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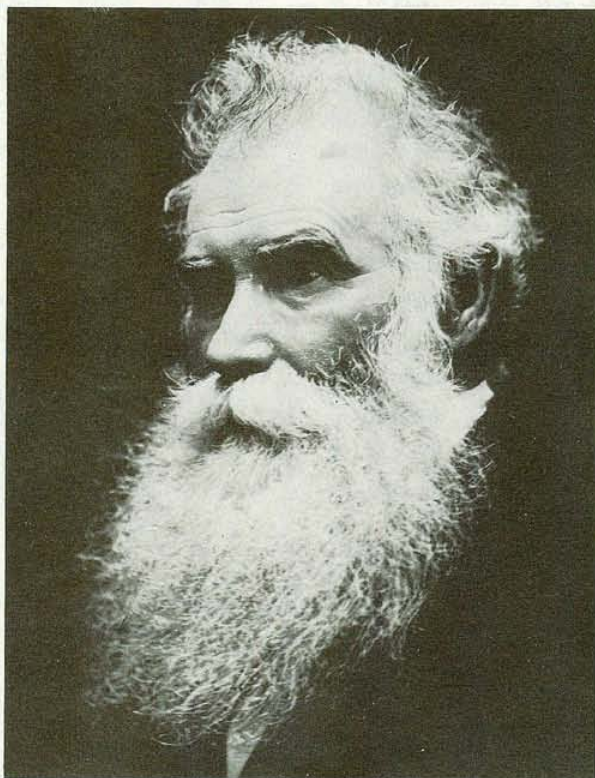
그는 올리버 카우드리, 데이비드 휘트머, 마틴 해리스의 안수로 1835년 4월 26일 사도로 성임되었다. 그는 이 경륜 시대에 최초의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다. 그가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것은 불과 그의 나이가 23세 때의 일이었다. 프랫 장로는 교회를 위하여 여러 차례의 선교 사업을 하였다. 그는 유능한 학자요, 작가요, 교사였으며, 뛰어난 연사이기도 했다.

올슨 프랫 장로는 1881년 10월 3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세상을 떠났다.

“예언자를 찾아 구백리”

나는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기 약 일년 전부터 마음속에서 주님에 대한 의문이 심하게 일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아마도 주님을 찾으려 애썼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도 나만큼 간절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내 나이는 18세였는데 그때부터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던 19세가 되던 때까지 나는 편히 쉬어 보질 못했습니다. 몇개월 동안 농장일과 노

동일을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쉬러 집에 들어 간 사이에, 들이나 벌판에 나가서 몇시간이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 달라고 간구하였으며, 삶의 방법과 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러했듯이 나도 여러 종교 단체의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읍니다. 나는 감리 교회에도 나갔었고, 침례 교회에도 나갔었으며, 장로 교회 집회에도 참석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교리를 들었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교회 회원이 되라는 요청도 받았읍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서 떨어져 있는 채, 주님께서 올바른 길을 보여 주시기만을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간구하고 있었읍니다.

이러기를 일년을 계속했을 때 마침내 이 교회의 장로 두 분이 이웃에 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교리를 듣고는 그것이 고대의 복음과 같다고 믿었으며, 그 소리가 나의 귀에

들어 오자 마자 나는 성경이 진실한 것이라면 그들의 교리 역시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의식에 관해 가르칠 뿐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은사와 축복과, 교회에서 의식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능에 관하여도 가르쳤읍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들이 가르치는 원리에 반감을 갖지 않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도 않고, 두려움 없이 나는 고대의 복음의 원리가 이 지상에 회복되었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권능도 회복되었다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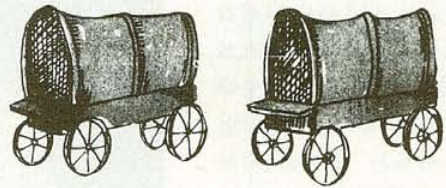
민이며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잠겼습니다. 나는 또한 내가 아직 젊은 나이에, 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 시작한 초기에 이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 한없이 기뻐합니다. 나는 앞장 서서 칩제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 지방에서 칩제를 받은 유일한 사람이었으며, 그후 몇년 동안도 그 지방에서 칩제를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는 곧 일을 정리하고 예언자를 찾아 구백리 길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몸을 돌려”

교회가 조직된 첫해가 지나가고 십이사도가 선택된 다음 해에 접어들었습니다. 때는 1835년이었습니다. 바로 전해에 우리 몇명은 하나님의 명령과 계시에 의하여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함께 미주우리주로 갔습니다. 요셉의 지시하에 나는 미주우리주 클레이군에 수개월 동안 남아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고 가르치고 위로하며, 아직 그들에게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던 계시를 알려 주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완수하고, 미주우리주의 서부에 있는 여러 지부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 나는 4천리나 되는 오하이오주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자연의 악조건과 싸워가며 여러 마을을 지나면서 나는 오한과 열병과 학질에 고생했고, 인가로부터 오, 룩십리 떨어진 뜨거운 폭염이 내리쬐는 벌판에 누워 자기도 하고, 눈에 빠지기도 했으며 심한 오한에 떨다가는 고열로 고생하기도 하면서 예언자가 살고 있던 오하이오주 커틀랜드까지 수개월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가서 나는 몇개의 지부를 세우고는 오하이오주의 수도인 콜럼버스 시를 향해 떠났습니다. 이 도시에 말일성도가 있는는 조차도 알지 못했던 나는 도보로 혼자 도시를 들어 섰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시가지를 지나다가 나는 급히 몸을 돌려 지나가는 한 사람을 쫓아 가서 그에게 이도시에 “물몬”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물몬입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유일한 물몬이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넓고 사람이 많은 도시에서 하필 이곳에 살고 있는 유일한 말일성도에게 말을 건네게 되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라고 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 계시요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나를 그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커틀랜드에 있는 성도들이 발행한 신문을 보여 주었습니다. 신문에 실린 광고를 보니, 거기에는 프랫 형제가 신진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어느날 어느 시간에 커틀랜드에 와서 선택된 십이사도와 함께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정된 날짜와 시간은 매우 촉박했으며 십이사도는 이미 선택되었고, 그들은 정월회로서 첫 선교 여행을 떠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수개월간을 여행 하였으므로 신문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여행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도착하려면 도보로 여행해서는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협조를 얻어 나는 커틀랜드로 가는 급행 역마차를 탈 수 있었습니다. 나는 커틀랜드에서 십리 떨어진 윌로비에 내려서 걸기 시작하여 일요일 아침 그 모임의 시간에 맞추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손짐을 맡겨 둘 시간조차 없어서 나는 손가방을 든 채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는 요셉, 올리버 카우드리, 데이비드 휘트머, 마틴 해리스, 그외의 물몬경의 증인과 이미 선택되어 성임 받은 열두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월회로서의 완전한 조직을 갖추고 첫 선교 활동에 대비해서 최종 점검을 하기 위해 그 모임을 개최한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그 모임에서와 그 전에 수차 가진 모임에서 내가 이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나의 소식을 듣지 못했으며 나의 행방을 알고 있지 못했으나, 그들은 내가 본다는 것을 예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미주리주에 있었다는 것과 내가 수개월 전에 그곳을 출발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예언의 영을 부으사, 내가 이 모임에 참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내가 모임에 참석한 것을 본 많은 성도들은 그들의 눈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언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성도의 빛 1974년 6월호

조지 에이 스미스



1974년 6월호

약 력

조지 에이 스미스는 1817년 6월 26일, 뉴욕주 센트로렌스군 포츠담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요셉 스미스 일세와 형제간인 존 스미스였으며, 그의 어머니는 클라리사 라이만이였다. 존과 클라리사는 아들을 조지 앨버트 스미스라고 명명했으나 그는 자신을 조지 에이 스미스라고 불렀다.

조지 에이가 11세 되던 해, 그의 가족은 그의 사촌 요셉 스미스 이세가 받은 시현에 관하여 쓴 요셉 스미스 일세의 편지를 받게 되었다. 그후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아버지인 요셉 스미스 일세가 새로 번역된 물몬경을 가지고 포츠담을 방문했다. 그의 가족 중 가장 먼저 교회에 입교한 사람은 그의 어머니였다. 1832년 봄에 조지의 아버지 존 스미스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 침례를 받았다. 조지 에이는 1832년에 처음으로 그의 사촌인 요셉 스미스를 만났다. 그는 1832년 9월 10일에 회원이 되었다.

1835년 3월 1일, 조지 에이 스미스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마지막 일원으로 성임되었다. 3개월 후 그는 미국의 동부 여러주로 첫 선교 여행을 떠났다.

조지 에이는 다시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름을 받아 곧 이 중요한 부름을 수행하기 위하여 떠났다. 1839년 4월 26일 21세가 되던 해에 그는 사도로 성임되었다.

브리감 영은 조지 에이 스미스를 가리켜 “역사의 보고”라 했으며 올슨 휘트니는 그를 “일반 상식의 산사전”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평을 듣는 사람이라면 1854년 4월 7일 그가 교회 역사가로 부름을 받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는 이 직책을 맡아 16년간 봉사했다.

조지 에이는 1856년에 유타 지역을 대표하여 워싱턴에 가 유타를 주로 승격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1868년 조지의 평생의 친구였던 히버 시 킴볼이 세상을 떠나게 됨에 따라 10월 대회에서 브리감 영 대관장의 제일 보좌로 그가 부름을 받았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는 1875년 9월 1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세상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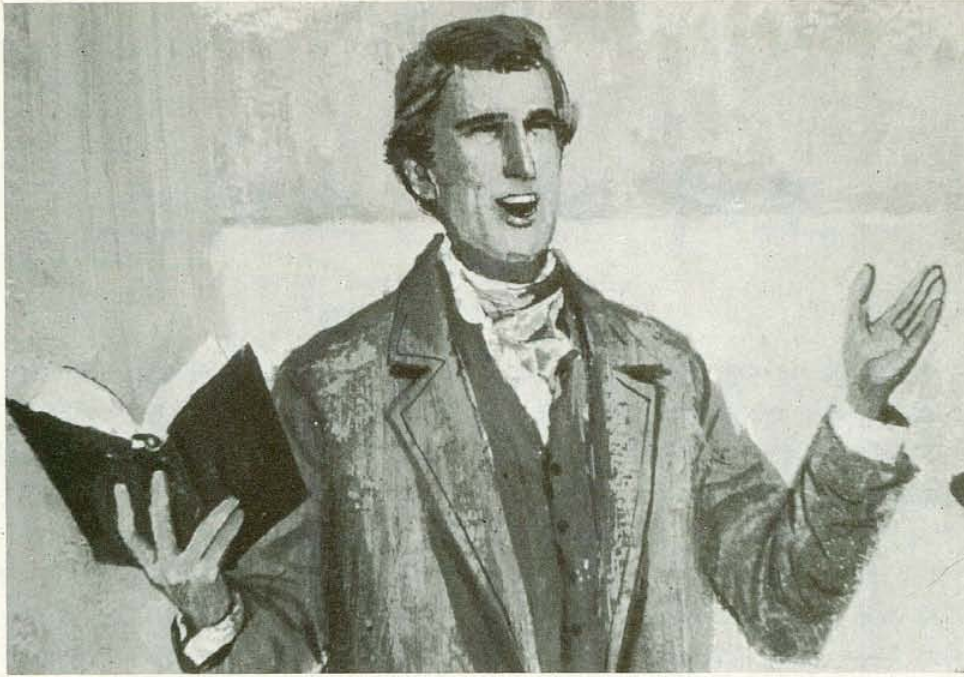
“금성경”

8월 어느날 나의 아버지 요셉 스미스¹와 그의 막내 아들 돈 칼로스가 우리집을 방문하면서 물몬경 몇 권을 가져왔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그의 형을 18년만에 만났으므로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요셉 아버지는 나의 집에서 천리나 떨어진 서부 뉴욕주 온타리오군과 웨인군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급히 할아버지를 뵈고자 하였으므로, 아버지는 말과 마차를 구하여 50리가 떨어진 스톡홀름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모셔 드렸습니다. 어머니와 나는 토요일과 일요일 내내 앉아서 물몬경을 읽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는 이웃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가 부른 “금성경”을 보기 위해서 물려 들었으나 물몬경을 보고는 크게 실망하여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나 역시 그 책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반대가 너무나 어리석고 경박하게 들렸으므로 그들의 반대가 잘못된 것이라고 변박해서 응수하자 그들은 당황해 하며 가버렸습니다.

나는 계속 물몬경을 읽었는데 나의 마음속에는 계속 의문이 일었습니다. 아마 물몬경이 거짓임을 입증하기에도 충분한 정도의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토론했음

1. 요셉 스미스 일세, 예언자의 아버지.





니다. 그러나 그가 너무도 완벽하게 나의 의문을 풀어주고 나의 마음을 밝게 해주었으므로, 이후로는 이 책의 신성을 한번도 부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강의 열음을 깨고”

나의 아버지는 수년간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침례받기 전 6개월간은 꼼짝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침례를 받다가는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강의 열음을 깨고, 두자 가랑 쌓인 눈을 헤쳐 약 200미터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추운 날이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아마 그가 물속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건강은 점차로 회복되었습니다.

“목사는 어쩔 줄 몰라 달아났습니다”

내가 말씀을 마치자 한 루터교회 목사가 일어나더니 내가 물몬경은 참된 것이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흥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 증거가 없으면 저주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경우 그것이 참된 것이라는 것은 세 가지 방법으로 증명됩니다. 첫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국가를 우리는 지도상에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낯선 친구에게 물몬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제이라헤물

라를 지도에서 지적해 보라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성경에는 원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는 물몬경의 원판을 보여 달라고 요구합니다. 셋째로, 물몬경이 유능한 사람에 의하여 번역된 것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요구합니다. 성경에 관한 증거가 충분합니다. 물몬경에서도 같은 증거를 얻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사기요, 이를 선전하는 자를 지옥의 자녀라고 선도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대답하여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명망이 높으신 분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이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나의 말을 가로 막으면서 “제이라헤물라 땅의 지도를 보이시오”라고 외쳤습니다. 나는 “당신이 창세기에 나오는 놋의 지도를 가져온다면 언제라도 나도 제이라헤물라 땅의 지도를 보여 드리겠소”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또 “물몬경의 원문을 가져오시오. 나는 성경의 원문을 가져 오리다.”하고 말했습니다. 이에 나는 “하나님이 그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기록했던 고대 양피지 원문과 에스겔이 기록한 두 막대기를 가져 오면 나도 물몬경의 원문을 가져다 보이리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청중들은 웃음을 터뜨렸으며, 목사는 어쩔 줄 몰라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㉞

조라 스미스, 조지 에이치 스미스의 가족과 조상의 일대기(프로보: 브리감 영 대학교 출판사 1962) 44페이지

조지 에이 스미스, “회상” 브리감 영 대학교, 도서관, 5페이지

스미스, “회상” 49페이지

오 사랑스러운 아침

마가렛 시 리차즈와 캐롤 시 매드슨 글

하워드 포스트 그림

1 820년 어느 봄날
소년은 무릎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그날에 소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린 소년 요셉에게
그가 이를 사임 말해 주시고,
주의 교회 회복도록
택함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소년 요셉은
주님의 예언자임을 난 알아요.
하늘이 열리고 복음이 회복된 걸
나는 기뻐합니다.

백 오십년 전에 뉴욕주 팔마이라
어느 작은 마을에 살고 있던 어린 소
년 요셉은 혼자서 기도하러 숲속으로
들어 갔습니다. 소년은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

다.
아름다운 이날 아침 요셉의 기도는
신기하게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 아
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에게 직접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의 첫번 시현에 관한
다음 이야기를 완성시키도록 적합한
곳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1. 요셉이 기도하러 숲으로 간 때는
 - ㄱ. 1830년 가을이었습니다.
 - ㄴ. 1820년 봄이었습니다.
 - ㄷ. 1847년 겨울이었습니다.

2. 그때 그의 나이는
 - ㄱ. 열 살이었습니다.
 - ㄴ. 열 여덟 살이었습니다.
 - ㄷ. 열 네 살이었습니다.

3. 그는 성경의

- ㄱ. 야고보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 ㄴ. 마태복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 ㄷ. 요한복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4. 그가 읽은 구절은

- ㄱ.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
요”였습니다.
- ㄴ.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
이요”였습니다.
- ㄷ. “너희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하나님께 구하
라”였습니다.

5. 요셉이 알고 싶었던 것은

- ㄱ. 교회에 가야 하는지였습니다.
- ㄴ. 어느 교회에 들어가야 하는
지였습니다.
- ㄷ. 왜 교회에 가야 하는지였습
니다.

6. 구세주께서는 요셉에게

- ㄱ.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가
라고 하셨습니다.
- ㄴ. 참된 교회가 지상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ㄷ. 교회에 가서는 안된다고 말
씀하셨습니다.

7. 요셉은 후에

- ㄱ. 말일성도 예수 그
리스도 교회의 초
대 예언자가 되
었습니다.
- ㄴ. 주님의 충실한 중
이 되었습니다.
- ㄷ. 사람들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
니다. ㉞



친구가 친구에게



대회 말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창세 전에 창조되어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전세에서 어떤 계명에 순종했으므로 육체를 가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지상에 오기 전에 살았던 생활에 대한 보상으로 현재의 가정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성스러운 관계를 알 때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해럴드 비리 대관장

국적이나 인종이나 문화는 문제

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대로 생활함으로써 안정을 얻고 힘을 기르게 됩니다.

제임스 에이 컬리모어 장로

이 세상은 여러분 각자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위하여 대속해 주셨으며, 복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엘드레드 지 스미스 장로

그리스도께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22:34)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우리 가족이며, 다음으로는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함께 지내고 영향을 주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오 레슬리 스톤 장로

여러분 중에는 교회 회원이 거의 없는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표준에 맞게 행동하고 성품을 향상시킨다면 여러분의 모범은 산위에 높이 들리워 밝게 빛을 발하여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데이비드 비 하이트 장로

교회에서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 경건하고 우리의 영을 고취시키는 가사로 된 곡을 하나만 고르십시오. 아마 “다 함께 노래를”이라는 어린이 찬송가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의욕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에 대해 생각하든지 이 찬송을 기억하십시오.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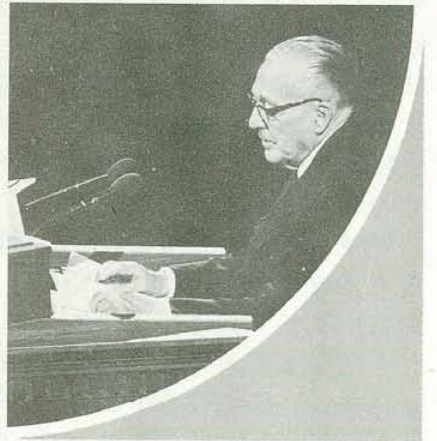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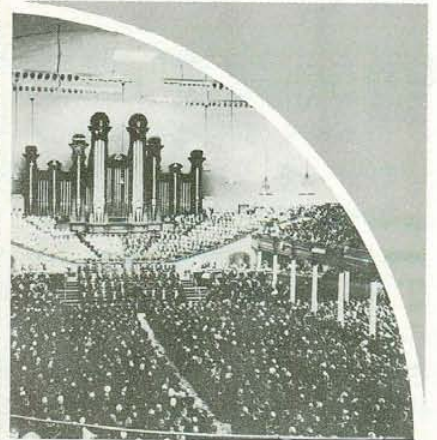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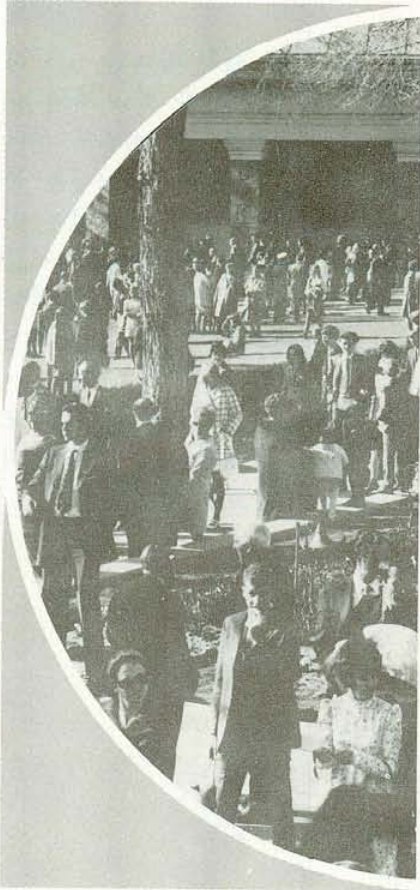
일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게으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근면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큰 포부를 갖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본 제이 페더스톤 감독

오늘의 소녀는 내일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역할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소녀 여러분, 형제들에게 미치는 여러분의 영향을 과소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은 형제들로 하여금 깨끗하고, 유덕하고, 성공적이며, 행복하게 생활하겠다고 결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엔 엘튼 태너 부대관장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언젠가는 그의 면전에 돌아 가 그와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누구이며,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



은 자 가운데서 살아 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여러분의 아버지를 지지하고 존경하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그의 수고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우리에게 살아계신 예언자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이 계시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존경과 찬양을 받을 만하시며, 그의 가르침과 조언과 인도로 우리를 이끄시는 위대한 분입니다.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장로

아담의 시대로부터 해롤드 비리 대관장의 시대까지의 모든 예언자를 비롯해서 현재 살아계신

예언자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 중에서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로 택함을 받으셨으며 지금도 우리의 구속주가 되심을 간증하였습니다.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만일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면, 그의 예언자가 말했던 모든 말씀은 바로 그분이 지금 이 때에 하고 싶은 말씀일 것입니다. ㉞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십일조의 축복



1974년 6월호

여름 비

넬은 너무나 기뻐서 일요일에 입는 외출복을 바꿔 입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 넬은 대회에서 들은 것을 아빠에게 들려 주려고 뛰어나갔다. 신을 신는 것조차 잊고 넬은 맨발로 먼지나는 마당을 뛰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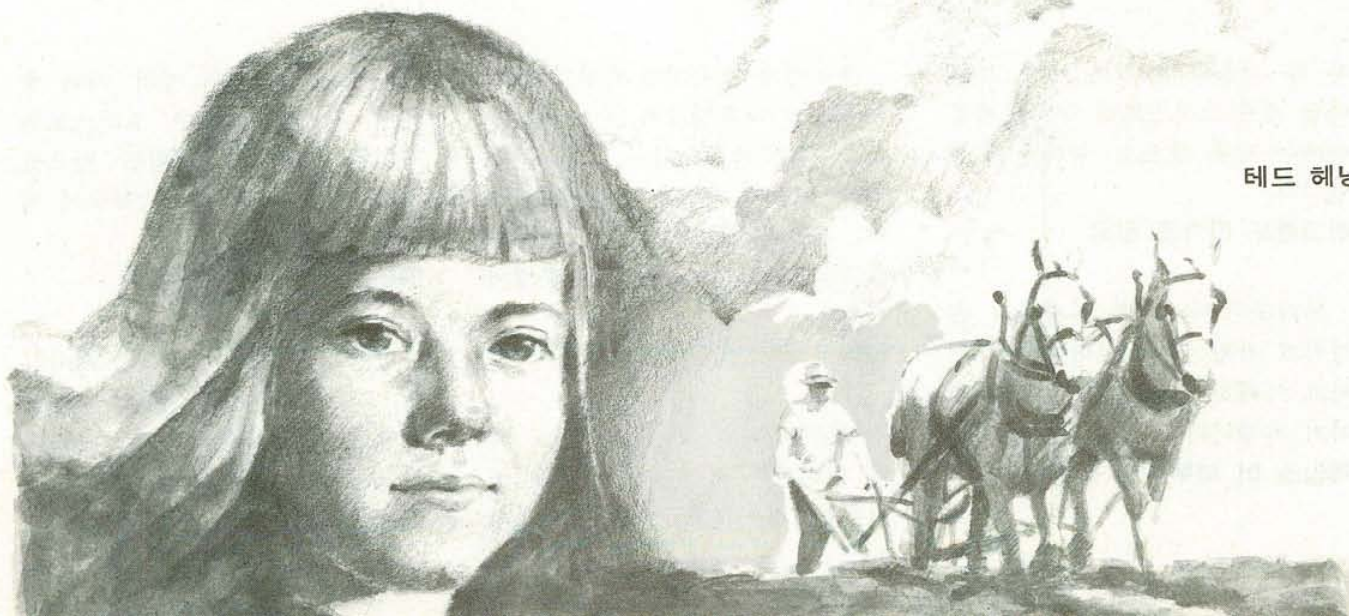
때는 1899년 6월이었다. 남부 유타주에는 2년 이상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다. 세인트 조지 근방을 흐르고 있는 시내는 물론 우물마저도 말라버렸다. 곡물은 물이 없어 자랄 수 없었으며, 가축들도 벌판에 죽어 넘어져 있었다. 많은 가족이 이미 다른 곳으로 이주했으며 넬의 아버지도 역시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님께서 멀고 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부터 이곳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도 아버지는 짐꾸리는 일로 바빴기 때문에 대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을 그날 아침 일찍 결정하였던 것이다.

“아빠!” 넬은 아빠에게 달려 가면서 외쳤다. “이제 마차에서 짐을 내려 놓으세요. 이사가지 않아도 돼요! 오늘 대회에서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님이 우리가 십일조를 바치고 곡식을 심으면 비가 올 거예요. 그러면 음식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아빠는 믿으려 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저으면서 마차 앞좌석에 앉아 황폐한 들을 바라 보았다. 아빠는 비가 안오면 또 한 해를 지낼 수 없다고 누차 설명했었다. 곡간에는 식량이라곤 거의 없었으며 돈이라곤 할아버지가 넬에게 준 이십불 뿐이었다. 저녁 늦게 식사를 하려고 손을 씻으시는 아빠가 어머니에게 다음날 아침 여섯 시에 떠날 준비를 완전히 갖추어야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넬은 들었다. “그렇게 하면 정오에는 틈스씨 목장에 닿게 될 거요.” 아빠가 말씀하셨다.

가족은 조출한 저녁 식탁에 둘러 앉았다. 아무도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넬은 너무나 슬퍼서 음식을 삼킬 수도 없었다. 겨우 삼키고는 말했다.



테드 헤닝거 :

“언젠가 할아버지께서 사람들이 브리감 영 대관장의 말씀대로 행해서 축복받았다는 이야기를 들려 주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식사하던 것을 멈추고 넬의 이야기를 들었다. “제가 나도 그때 살아서 예언자의 말씀을 따를 수 있었다면 좋았겠다고 말씀드리자, 할아버지께서는 브리감 영 대관장이 그당시 예언자였던 것처럼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님이 지금의 예언자이시니까 우리가 그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넬은 이야기를 마치고는 아버지에게 그녀의 귀중한 이십불을 달라고 부탁했다. “세인트 조지에 비가 내리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게 돈 감독님께 이걸 드리세요.”라고 넬이 설명했다.

다음날 아침 넬은 창문 너머로 들관 끝에서 불어 오는 커다란 먼지 구름을 보았다. 넬은 빨리 옷을 입고 마른 마당을 질러 뛰어 나갔다.

아빠는 뛰어 오는 넬을 보자, 말을 멈추고는 팔을 벌렸다. 넬은 아빠의 품에 안겼다. “잘랐니?” 아빠는 말했다. “네가 이곳에 와서 제때에 곡식 씨앗을 뿌리는 일을 도울 줄은 생각 못했었는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채 여러 주일이 계속 지나자, 세인트 조지의 성도들은 구름 한점 없는 하늘을 응시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8월 2일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넬도 아빠도 전혀 놀라지 않았다.

십일조는 축복입니다

조셉 형제는 축축한 땅에서 열심히 감자를 캐내었다. 조그만 스미스 가정에서는 여러 달째 식량이 부족하였으며 며칠 동안 먹을 것이라곤 췌기풀과 엉겅퀴, 나리 뿌리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두 소년은 감자를 캐내면서 어머니가 준비해 주실 먹음직한 흰야채 요리를 생각하며 입가에 침을 흘렸다. 아마 버터까지 있을지도 몰랐다!

그들이 일을 마치자 두 소년의 어머니는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마차에 싣고 십일조를 취급하는 사무실에 갖다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굶힐 줄 모르는 어머니라는 것을 아는지라, 그들은 말없이 감자를 마차에 싣었다. 조심히 가장 좋은 감자를 골라 싣고는 나머지는 남겨 두었다.

수년 후 이 조셉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6대 대관장이 되었을 때 그는 이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린 소년이었던 나는 마차를 몰았습니다. 우리가 십일조를 취급하는 사무실에 들어 서서 감자를 내리기 시작하자 직원 한 명이 내려 와서는 나의 어머니에게 “스미스 자매님, 자매님께서 십일조를 내야 한다니 너무하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나의 어머니는 그에게 돌아 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윌리엄 형제님이 부끄러워 해야겠어요. 형제님은 저의 축복을 막으시렵니까? 제가 십일조를 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십일조를 내는 이유는 물론 주님의 법이기 때문 만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축복을 기대하기 때문이지요. 이 제명과 다른 제명을 지킴으로써 저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어 우리 식구를 잘 부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번째 순교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 그의 사도들은 성전에서 또는 사람들의 집에서 계속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할 일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금전을 관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한 지혜로운 사람 일곱 명을 선택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일곱 명의 신앙깊은 사람은 집사로 부름을 받았으며, 사도들이 그들 각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습니다. 그들은 금전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도왔습니다.

첫번째로 선택된 사람은 스테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도 스테반의 신앙과 능력에 대하여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내는 온통 스테반의 신앙과 그의 이적에 대한 소문이 지지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회당의 사람들로 하여금 스테반과 논쟁을 일으키게 하였으나 그들은 스테반의 지혜와 정신에서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테반을 제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사악한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테반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스테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스리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따라서 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원과 서기관은 이러한 거짓말을 듣고 스테반을 잡아 공회에 넘겼습니다. 거짓 증거를 한 사람들도 공회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스테반을 보니 그의 주위에 광채가 나며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스테반에 대하여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비난하자 대제사장은 스테반에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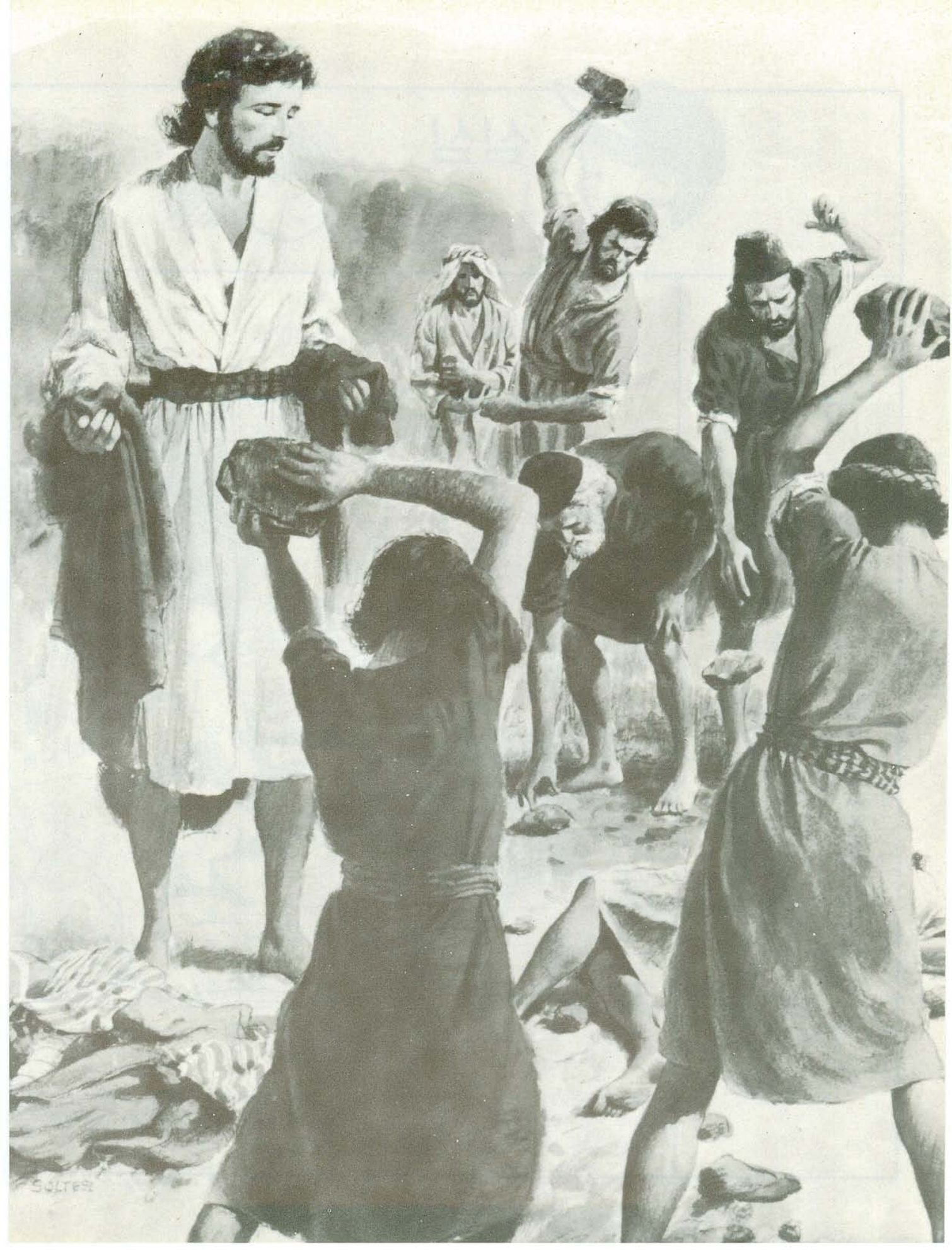
스테반은 그의 목숨이 위태한 것을 알면서도 일어나서 용감하게 모든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 모세, 요셉, 그외의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상들의 불순종과 그로 인해 생긴 멸망을 그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스테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므로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원들은 화가 나서 귀를 막고는 스테반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노여움으로 가득 차서 스테반을 끌고 성 밖으로 끌고 나와 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돌던지는 것은 그당시에 행하던 형벌의 하나였습니다. 좀더 쉽게 돌을 던지기 위하여 그들은 옷저고리를 벗어 곁에 있던 사울이라 하는 젊은이에게 맡겼습니다.

돌에 맞자 스테반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 보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하나님을 크게 부르고 주님께 죄를 지은 자를, 곧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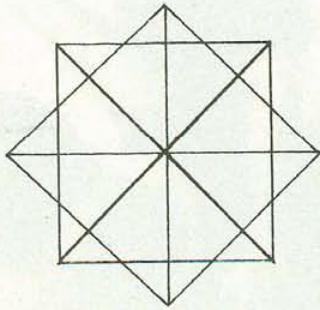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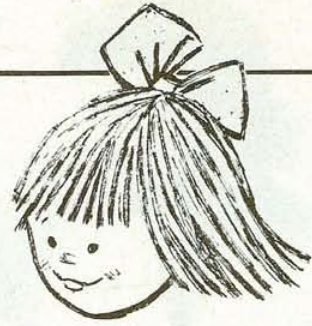
스테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첫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스테반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은 그의 친구들은 그의 상처난 시체를 가져 가서 슬퍼하며 장사지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젊은 용감한 스테반을 위하여 애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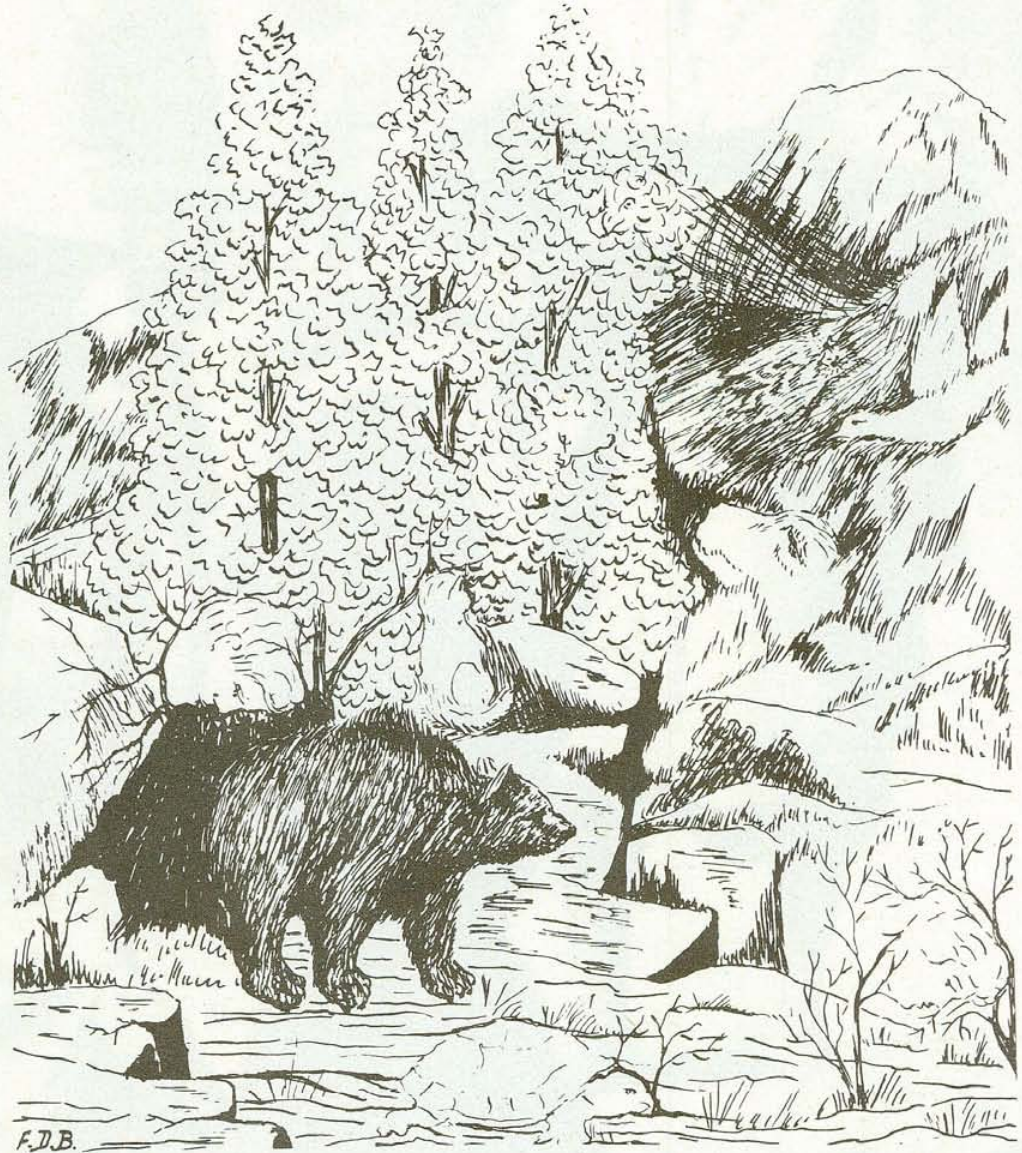
심심 풀이



시력 문제

여러분이 재빨리 얼마나 정확하게 볼 수 있는가를 시험해 보는 문제입니다. 도표를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다음 세가지 질문에 답하십시오. 각 선이 만나거나 교차되는 지점에 나무 한 그루씩 심는다면 몇 그루나 심을 수 있었습니까? 몇 개의 길이 나졌습니까? 각 길에는 몇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까?

1. 마름모꼴
2. 12
3. 9
4. 16



찾아봅시다

늑은 곰 한마리가 산전을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둘러보니 앵무새, 거북이, 개, 남자, 양, 소녀, 올빼미, 날아가는 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찾아 보세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꿈

시푸아우 제이 마추아우토 글

현
영

1974년 6월호

1 962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나는 하와이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학년 중간에 나의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나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여의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매우 가까이 지냈으며 인생의 지침, 재정적인 보조, 개인의 복지 등에 관하여 완전히 어머니에게 의존해 왔었다. 어머니의 사망 통지를 받자 나는 울면서 하나님께 왜 이렇게 가혹한 일을 내게 일어나게 하셨는지를 여쭙어 보았다. 나의 생활의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단 한분인 어

머니를 왜 데려가셨을까? 나는 하나님께 나의 화가 진정될 때까지 교회를 멀리 떠나겠다고 기도로 말씀드렸다.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몹시 화가 나 있었으나 나의 분노는 어머니가 늘 가르쳐 주신 한 가지 귀한 교훈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

어머니는 나에게 금식과 기도의 중요성을 수차 강조해 주셨다. 내가 대학에 오느라고 집을 떠난 후에도 어머니는 종종 편지로 이 교훈을 상기시켜 주셨다. 어머니의 교훈 때문에 나는 항상 아침 저

녁으로 기도할 것을 잊지 않았으며 충실하게 금식의 법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이와 같은 특별한 시련의 시기에 드리는 기도는 여느 때의 기도가 아니었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육신의 아버지께 말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로 이야기하였다. 나는 하나님께 내가 아직 화가 나 있으며 화가 진정될 때까지는 예배당에 한 발자국도 들어 놓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내가 받은 가정 교육과 어머니의 교훈으로 인하여 나는 어머니가

살아 계신다면 승락하시지 않을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조금도 갖지 않았었다. 그러나 나는 마음속으로 내가 일요일에 잠이나 텔레비전 시청으로 하루 온종일 보낸다는 것을 어머니가 좋아하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럴 때면 나의 생각은 막다른 골목에 부딪치게 되었다. 나는 또한 매우 외로웠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밤에 나는 영의 세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선교 사업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경험으로 나의 분노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변하였고 나는 눈물을 흘렸다. 이날 밤 나는 흔히 꾸지 않던 꿈을 꾸었다. 꿈에서 나는 교재를 손에 들고 많은 사람 앞에 서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어머니를 생생하게 보았다. 그 꿈은 너무도 생생하여서 나는 어머니에게 달려 가려고 꿈에서 벌떡 일어났었다. 그러나 눈을 뜨자 나는 방안에 혼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였다.

무엇인가에 이끌려 나는 옷장 둘째 선함을 열고 나의 어머니로부터 온 편지를 꺼냈다. 나는 불을 켜고 이상하게도 둘째 장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어머니가 선교사의 부름을 받았다는



대목이 있었다. 어머니는 교회와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하겠다고 말했으며 어머니가 다음해(1964년) 4월에 선교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어머니의 편지는 1963년 말에 쓰여진 것이었다.

내가 어머니 편지의 대목을 읽자 한 줄기의 빛이 나의 마음에 비치더니 점차로 나의 가슴을 메우었다. 이 빛으로 나는 어머니가 그녀의 선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저 세상으로 가신 것을 의심 없이 확실히 알고 이해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1964년 4월 2일에

돌아가셨으며 이것은 바로 어머니가 선교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달이었다.

나는 편지를 손에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내게 주신 빛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지난날 나의 어리석었던 행동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후로 나는 주님을 위하여 일생동안 무슨 일이든 봉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마추아우토 자매는 사모아 출신으로 현재 교회 번역사로 일하고 있다. ㉞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때 자신을 존중할 수있다

해럴드 비리 대관장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여러분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그의 백성들을 악한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되풀이하면서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잘 묘사했습니다. 그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찌어다 평강이 있을찌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이사야 57 : 19-21)

다른 예언자들도 이와 같은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니라.”(애 41 : 40)고 말했습니다.

평강을 가져다 주는 길에서 멀리 떠나는 사람은 진흙과 더러운 것이

솟구치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고 예언자 이사야가 잘 묘사한 그 길을 사람들이 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곧 자존심의 결핍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가치있는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말한 지혜의 말을 들어 보십시오.

“자존심—이것은 모든 덕의 머릿돌이다.”

존 프레드릭경

윌리엄 허셀 (1792-1871) 영국의 물리학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존심이란 인간이 입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의복이며, 인간의 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감정이다.”

사무엘 스마일스 (1812-1904)

스코틀랜드의 전기 작가.

“누구나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매긴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요구하는 가격은 타인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 인간은 그 자신의 의지로서 위대하게도 혹은 미약하게도 된다.”

조안 본 쉘러 (1759-1805)

독일의 시인, 극작가, 철학자.

근교에 살고 있는 한 사랑스런 어머니가 내게 이러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조국을 사랑합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자신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존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1974년 6월호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어떤 사실에 대하여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서 자존심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그들의 의욕, 예절 마치 눈 사태처럼 세계를 뒤엎는 듯한 허용의 물결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참으로 많은 사람이 태초로부터 우리 조상에게 큰 의미를 주어 왔던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절의 표준을 저버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말은 곧 이 세상의 평화와 단합과 조화와 의와 인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과거에 살았거나 현재 살고 있거나 앞으로 살 모든 남녀노소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영원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을 알고 배우고 사용할 때에만 그 말은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덕이나 정절이나 정직이나 신앙이나 성품에 대해 말하는 것이 구식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위대한 인간을 형성하는 자질이며, 현재의 행복과 앞으로 올 세계에서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리켜 줍니다. 무서운 파파, 기근, 유혈을 낳는 전쟁의 참사, 질병, 비극, 고난이 닥쳐 오더라도, 이러한 자질은 우리의 생에서 닦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가르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경고의 말에 주의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의 길을 택

다. 이와는 달리 이 자매가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그는 생을 사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누구 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창세전에 조직된 예지로 창조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는 아내나 자녀에 대한 사랑을 곧 잃을 것이며, 그가 생활하고 있는 가정과 국가를 존경하지 않게 될 것이며,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마저도 잃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내란, 가정 안에서의 무질서와 사랑의 결핍,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과의 대화의 단절, 이러한 모든 결과는 자신에 대한 존중심을 잃은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한번은 어떤 모임에 말씀을 부탁받아 갔었습니다. 나의 말을 들을 사람들의 대부분은 교회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이유는 입교하는데 필요한 표준을 지켜야 한다는 중

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고 싶어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할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였습니다. 이 주제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보던 중, 나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말을 듣게 되는 사람들 중에는 반드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생을 이룩해 갈 기본적인 견고한 기초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의 난폭함이나 사춘기 청소년의 반항은 그들이 신체적 또는



지적인 성품으로써 언지 못하는 인기나 주목을 얻으려 시도할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따라서 환락을 일삼는 소녀나 몸가짐이 단정치 못한 소년은 외부적인 걸치레 또는 비정상적인 태도(이상한 방법으로)로써 그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멋의 특성을 나타내 보려는 사람에게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도는 인간으로서의 참된 자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내적인 좌절을 폭로하는 결과만을 가져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만일 자신을 알기만 한다면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는 큰 가치를 상실한 사람들은 자존심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경전에 있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 질문에 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모든 사람에게 큰 의의를 던져 줄 것입니다.

시편 작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까.”(시 8:4-5)

다음의 것은 주께서 음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찌니라...그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욥 38:4-7)

성경에 있는 이상의 질문을 요약하여 말하면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왜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까?”라는 간단한 질문이 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맥도갈*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을 도덕적

인 면에서 소생시키기 위하여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인간의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나는 “오 하나님, 나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높이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옛 영국의 직공이 생각납니다. 이 기도야말로 모든 사람이 간구해야 할 기도입니다. 오만과 기만과 거만을 날게 하는 그릇된 자기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 즉 하나님에 대한 가치, 인간에 대한 가치를 믿는 믿음”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올바른 자존심을 우리는 간구하여야 합니다.

혼란이 많은 세상에서 자기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인식하여야 할 그와 같은 질문에 나는 혼란에 싸여 있고 황량한 이 세상에 나의 음성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히 12:9)

이 성구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육체의 아버지 뿐 아니라 영의 아버지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든 은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민 16:22)

그들이 주님을 “모든 육체 [인간]의 생명*의 하나님[아버지]”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계시로 우리는 영이란 누구이며 무엇인가를 일견하여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나 아브라함에게 창세 이전에 조직된 예지들을 보여 주셨더

라. 이 모든 것 가운데 고귀하며 위대한 자가 많더라.

“하나님이 이 영들을 보시니 좋은지라, 그가 저들 가운데 서시며 가라사대 나는 이들을 나의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가 영이 된 이들 가운데 서 계셨음이라. 그가 보시니 저들이 좋았더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는 저들 중 하나라. 너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아브라함서 3:22-23)

주님께서 전세에서 충실했던 사람은 들켜 지체인 육신을 입고 지상에 음으로써 더욱 더하여 질 것이며,

또한 그들이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저희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 지리라”(아브라함서 3:26)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구에는 몇가지 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영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얻었습니다. 전세에서 영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영을 우리의 죽어야 할 몸과 분리시켜 볼 수 있다면) 현대의 말일의 예언자는 영감을 받아 이에 답변했습니다.

“...영계의 것은 이 세상의 것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이 세상의 것은 영계의 것과 같은 모양이니, 인간의 영도 인간의 신체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짐승이나 다른 모든 생물의 영도 그와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77:2)

우리가 이 성구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의 진리는, 과거에 영으로 존재하였고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모두 첫번째 시험을 통과하였으며 죽어야 할 몸으로 이 지상에 내려 올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첫번째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전세에서 창조되었

* 맥도갈, (1871-1930) 영국계 미국인.

* 역자주: 성경에는 생명으로 번역되어 있으나 영을 가리킨다.

던 영들 중 삼분의 일이 그러했듯이 육신을 갖게 되는 특권을 박탈당하고 무시퍼라고도 불리우는 사탄을 따라 쫓겨 났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 중에는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영체만을 지닌 자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한 예언자는 죽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흠은[인간의 육체를 가리킴]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 가리라”(전 12 : 7)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있어 본 적이 없는 곳으로 돌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출생과 같은 하나의 신비한 과정으로 간주하며, 그리고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세주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 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 가는 것입니다.

이 성구[아브라함서 3 : 22-23] 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주님께서 모세와 예레미야와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태어나기 이미 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일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이 사실을 더욱 확실히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중요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모든 사람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미 그 일에 부름을 받고 예임되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나도 이 일을 행하도록 예임되었다고 믿습니다.”(교회정사, 제6권 364페이지)

그러나 여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경전에 “예임”이라고 말하는 부름이 있으나 또 다른 영감의 말씀이

* 역자주: 여기서 “신”이라 함은 인간의 영을 말한다.

있습니다. “보라,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교성 121 : 34)

이 성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우리가 지상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이 세상을 위해 자신을 준비한 것보다 더 높은 직분에 이미 세상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에 예임되었던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에서는 고귀하고 위대한 영으로서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지도자가 되었을 수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으나 이 지상에서 그 부름을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같이 질문하였습니다. “...택함을 받지 못함은 무슨 연고요?”(교성 121 : 34)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첫째, “저희 마음이 지나치게 이 세상 것에 얽매어 있고...” 둘째, “인간의 영예를 갈구”(교성 121 : 35)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방금 읽은 것을 요약하는 의미에서 나는 여러분께 “여러분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창세 전에 조직된 예지로 창조되어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전세에서 어떤 제명에 순종했으므로 육체를 가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지상에 오기 전에 살았던 생활에 대한 보상으로 현재의 가정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돌이나 나무나 놋으로 “알지 못하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 무지하게 섬겼던 사람들에게 전한 사도 바울의 유명한 설교 중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년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사도행전 17 : 24, 26-27)

신명기에는 주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호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신명기 32 : 8)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들의 상속의 땅으로 된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 전에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음 성구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와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신 32 : 9)

이 성구에 비추어 보면, 후에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된 야곱의 혈족으로 태어난 자들과 이스라엘의 자녀로 알려진 그의 후손은 이 지상에 태어났던 모든 인간 중에 가장 우수한 혈족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보상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약속되고 예임되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전세의 영계에서 살았던 생활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러한 가정에 대하여 의심을 표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이 죽은 후에 인간의 지상에서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리라는 사실을 의심없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상의 생활에서 받은 것은 곧, 이곳에 오기 전 우리가 행한 공적에 따라 주어질 것임을 믿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까요?

경전에서 얻게 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모두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반항적인 기질의 소유자들은 때로 자유의지를 무슨 일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만 예언자가 이야기하는 자유의지의 참다운 의미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가진 인간은 자유로우며 만물이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졌느니라. 인간은 만민을 위하여 마련된 크신 중보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할 수도 있거니와, 악마의 권세와 속박에 매어 속박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느니라. 이제 악마가 속박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만민을 자기 처지처럼 비참하게 만들고자 함이라.”(니파이이서 2 : 27)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육체의 신성함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전 3 : 16-17)

또한 그는 교회에서 침례받고 특별한 은사인 성신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 : 19-20)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앞서 언급했던 유명한 심리학자 맥도갈의 “인간을 도덕적인 면에서 소생시키기 위하여 맨먼저 해야 할 일은 인간의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라는 말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해시켜 주는 것보다 자존심을 더 잘 회복시키는 방법이 또 있겠습니까?

행동이나 외모나 언사에서 자존심이 결여된 것을 나타내 주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사탄이 그를 이겼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탄은 “인간을 미혹케 하며, 많은 자를 자기의 뜻대로 포로가 되게 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멸하려고”(모세서 4 : 1-4 참조)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는”(모세서 4 : 4) 사람들의 운명이라고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전 나는 학생들의 자살에 대하여 조사한 어떤 목사의 보고를 읽었습니다. 면밀하게 조사 연구한 결과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살한 학생들에게 뚜렷한 생활 철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애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은 의지할 것을 찾지 못하고 결국 회피라는 비겁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는 바로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들려 주신 비유의 경우가 될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마태복음 7 : 26-27)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영원한 목적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생이니라.”(모세서 1 : 39)

영원한 계획의 첫번째 목표는 우리 작자가 지상에 나와 육체를 갖는 것

이며, 그 다음은 사망과 부활 후에 영과 부활된 몸이 다시는 사망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모든 인간에게 자유로이 주어진 은사라고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 : 22)

몇 년 전 한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만난 젊은 어머니의 말은 질병으로 죽어 가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자식을 잃는 어머니에게 주는 이 성구(고전 15 : 22)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성스러운 관계를 안다면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지금 죽거나, 아니면 70, 80, 90년을 살다가 죽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제가 활동할 수 있고, 제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빨리 갈수록 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니겠어요?” 그녀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 가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였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받았습니다.

나는 나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로 인해, 인간에게 주어진 귀중한 시간을 잘 이용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젊은 어머니가 황갈색 머리의 6살난 귀여운 딸을 안고 조부모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딸이 초등학교에서 배운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어머니의 반주에 맞추어 손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
날 세상에 보내
부모와 함께 살도록
가정을 주셨네.

“난 하나님의 자녀
나 비록 어려도
말씀해 주신 복음을
알게 해 줍소서.

“난 하나님의 자녀
당신 뜻 행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축복이 크도다.

(후렴)

“길을 찾아 가게 저를
도와 주소서
주와 함께 살도록
가르쳐 주소서.”
—다 함께 노래를, B-76—

어린 아이의 조부모는 눈물을 흘렸
습니다. 그때에는 어린 손녀가 하나
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 가기 위하
여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어머니가 충
분히 가르쳐 주기도 전에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 어린 아이의 기
도의 응답을 찾아 줄 책임과 어려운
이 세상을 잘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훈
련하고 인도하는 등의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채 죽게 되리라
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
세주이며 만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성스러운 관계를 알 때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병원에서 만났던 아름다운 자매에
게는 죽음이 더할 나위없는 평화였으
나, 임종 때 그와 같은 위안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란 무서

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서 죽지 아니한 자에게는 화 있을 진
저, 이는 죽음이 저들에게는 쓴 연고
니라.”(교성 42:47)

조지 버나드 쇼*는 다음과 같이 말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한 아버지
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지금
처럼 서로에게 소리지르는 것은 그쳐
질 것이다.”

오늘 내가 말씀한 것이 여러분과
또한 지금까지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이며 나는 어디서 왔는가에 대하
여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
었기를 바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
님의 신전이라고 여기는 경건한 마음
과 자존심이 여러분의 영혼에 깃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이 부르도록 가르쳤던 노래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도 거
들 마음속으로 되뇌이기를 간곡히 부
탁드립니다. 또한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아 보다 행복하고 풍부한
삶으로 인도해 주는 그 노래의 이상
에 보다 가까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
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성스러운 것
들을 알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방향을 잃은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이 세상을 위해 자신을
준비한것 보다 더 높은 직
분에 이미 세상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에 예임 되었
던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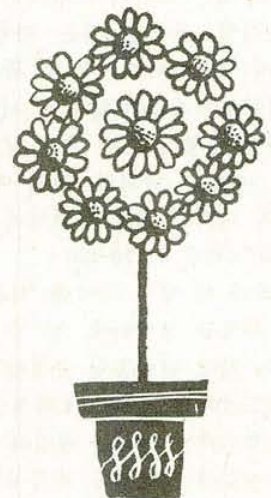
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으므로
나는 그들이 영생이라는 높은 목표를
향하여 앞으로 또 위로 높이 올라 가
려는 결심과 힘을 얻게 되기를 기도
드리며, 또한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말만이 아니라
실지 행동의 모범을 보여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
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마 11:25)라고 하신 주님의
심오한 말씀이 진리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영혼에 영이 증거하는 대로 이렇게
간증드렸던 마르다와 같이 나도 같은
영을 가지고 간증을 드릴 수 있는 것
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
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요 11:27
참조)

우리의 주님이시요 세상의 구세주
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으
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쇼, 조지 버나드, (1856-1950) 아일랜드의 극작가, 철학자.

지고의 영예 : 여성의 사명

대관장단 제일보좌
엔 엘든 태너 부대관장



1974년 6 월호

오 늘 아침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세상 만민에게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의 계획을 주셨지만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는 항상 핍박을 받았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순교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충만한 복음을 가진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예언자를 통하여 다시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오늘날 이 지상에 있고, 예수께서 살아 계신 예언자이신 해롤드브리 대관장을 통하여 이 교회를 관리하고 계시다는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예언자의 음성으로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전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파괴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는 교회내에서의 여성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에는 주님을 위한 사업과 이웃을 위한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 어머니, 독신 여성 등 훌륭한 여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여성의 기본 단체인 상호부조회에는 물론, 자녀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복음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청소년과 성인을 위



한 활동, 사회 단체인 상향회에 소속되어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들은 여러 분야에서 숙련과 헌신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몇몇 사람과 사업에 관하여 의논하고 난 자리에서 우리는 극히 사적인 것에 대해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내 아내는 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이 “그건 당신 생각이요, 나는 내 아내가 가장 최고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고, 훌륭한 어머니요, 주부요, 높은 이상을 지니고 하나님을 섬기며, 가족을 올바르게 이끌려고 노력하고,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기를 원하는 아내를 가진 것이 정말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남편의 감사와 사랑을 받음으로써 느끼게 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여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떠한 갈채나 영광도 그녀의

가장 가깝고 사랑스런 사람의 입과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과 감사의 표현과 하나님의 인정 앞에서는 극히 미약할 뿐입니다.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매우 특별한 존재라고 밝히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성의 위치, 의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셨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가진 자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지닌 자며, 주님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전 11 : 7, 11 참조) 여러분은 하나님의 협조자가 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성의 가장 커다란 특권이요, 축복이란, 곧 하나님과 협조자가 되어 그의 영을 세상에 오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과학적인 논쟁과 선동으로 여성을 유혹하여, 아내와 어머니와 주부로서의 여성 본분을 저버리게 한다는 사실에 또한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성 해방이니, 여성 독립이니, 성 해방이니, 산아 제한이니, 유산이니 하는 여성의 본분을 저해하려는 간계한 선동 구호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과 가족을 파괴하고 여성을 파괴하는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효과적인 도구에는 라디오, 텔레비전, 호색적인 기사로 가득차 있고 여성을 성의 상징으로 격하시켜 다루고 있는 잡지 등이

있습니다. 단정치 못한 의복, 마약, 알코홀 등은 도덕과 정절을 위협하고 생명까지도 빼앗는 무서운 도구입니다. 현대의 기계 문명으로 인하여 신속화된 교통 통신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양을 전하고 있으며 그 영향은 막대합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도색 잡지, 마약, 알코홀 등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도덕의 가치를 파괴하며 인간의 정신과 생각을 저속하게 만들어 결국 악마의 손아귀에 굴복하게 만듭니다.

브리감 영 대학교 총장 달린 오크스는 최초로 브리감 영 대학교 총학 생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불법적인 성 관계를 다룬 간행물이나 영화가 너무나 많이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것들을 멀리 하십시오. 도색 문학이나 외설 소설은 불결하며 오염된 음식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육체는 신체내에 들어 온 해로운 음식물에 대하여 거부 반응을 나타내지만, 우리의 두뇌는 악한 것을 토해 내지 못합니다. 일단 두뇌에 기록이 되면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어 때때로 상기시켜 주며, 그릇된 영상을 부각시켜 주고, 인생의 전전한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멀리 끌어 냅니다.”

우리의 어린 딸을 이러한 오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소녀는 내일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부터 그 역할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의 소녀들이 가정에서 미덕에 관한 사항을 배우지 않아 도덕적으로 약해진다면, 또한 그들의 자녀가 결혼이라는 성스러운 법에 따라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양육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서로 연결해 주고 있는 끈을 강하게 하고, 가정을 강화하며, 우리 자신의 모범적인 생활을 보임으로써 자녀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하며, 사실 그 길만이 이 세상과 다음에 올 세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주부로서, 자매로서, 애인으로서, 또는 좋은 이웃으로서 여성이 해야 할 모든 책임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책임은 실로 많은 여성이 가정 밖에서 애써 찾으려고 하는 여성의 능력, 취미, 창의력, 헌신, 정력, 기술 등을 발휘하고 싶어 하는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상의 역할을 맡는 과정에서 여성이 미치는 좋은 영향은 그 정도를 측량하기 어려울 만큼 큰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성의 가장 중요한 책임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은 우선 하나님의 영의 자녀를 세상에 데려오는 일을 돕는 하나님의 협조자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런 사실입니까! 이보다 더 위대한 명예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이 명예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즉,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여, 그들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 가기 위하여 행하여야 할 일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들이며 이 가르침 대로 생활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생의 목적과 왜 이곳에 왔는지, 또한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안다면, 그들은 의를 선택하여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것이며 항상 곁에 있어 파괴를 노리는 사탄의 유혹을 피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자기의 일거 일동, 말 한 마디, 태도, 심지어는 외모, 옷입는 법까지도 자녀에게 영향을 주며,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어린이가 장차 이룩할 삶의 방향과 사회를 위해 봉사할 것을 결정하는 태도, 희망, 신념은 가

정에서 어머니로부터 물려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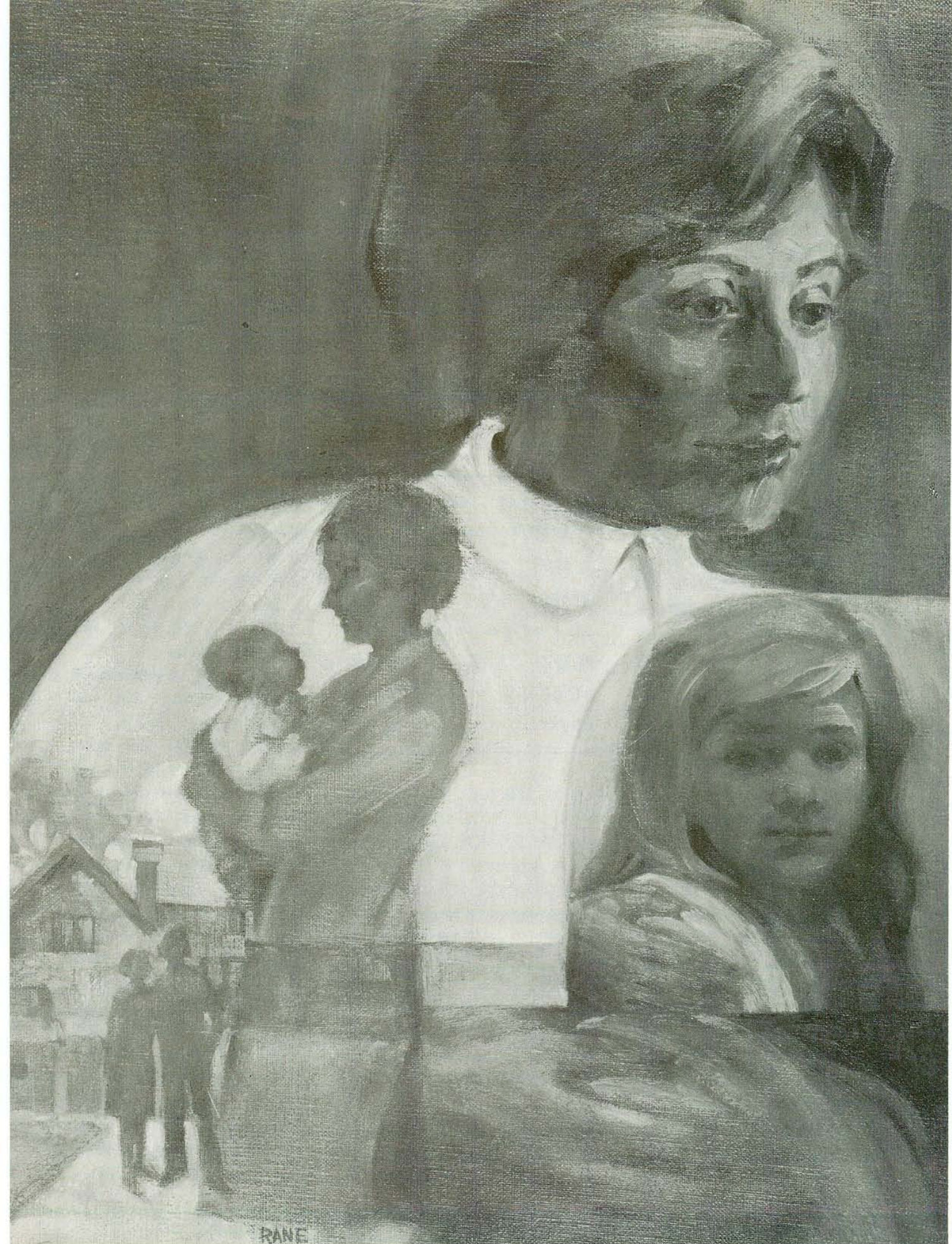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어머니란 능자의 손에 들린 움직이는 도구요, 모든 남성에게 열의를 더해 주는 기계이며, 지상의 모든 남성의 생애와 국가의 운명을 가름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나라의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다투거나 싸우지 말도록 가르친다면 그들 자녀들은 커서도 싸우는 일에 가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99페이지)

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는 말씀은 바로 그분이 뜻하던 바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브를 주신 것입니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으며, 그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창 2:24) 훌륭한 남자 뒤에는 훌륭한 여성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과 관찰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고용원을 택할 때 또는 사원의 승진을 심사할 때, 그들이 어떤 부인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자 한다는 사실은 상당히 흥미있는 일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남자에게 새로운 신권의 직분을 주려고 할 때, 항상 부인의 합당성과, 부인이 남편을 잘 보조해 줄 수 있는가의 문제를 놓고 토론합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남자에게 큰 힘과 지주가 됩니다. 때때로 그들은 여러분의 도움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남자에게 있어서는 그의 어머니나, 아내나, 애인이 자기를 믿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큰 격려와 희망과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남자는 그러한 사랑과 확신을 얻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휴비 브라운 장로님은 상호부조회



RANE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을 연약하다고 말합니다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아마 연약하지 모르나 영적, 도덕적, 종교적,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어떤 남자가 참으로 복음에 귀의한 여성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헌신적이며, 오래 참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며 때로는 선, 도덕, 신앙적인 면에서 남성보다 우월하기까지 합니다.” (상호부조회 대회 1965년 9월 29일)

여성은 남자 형제에게나 애인에게 미치는 자기의 영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여러분은 그들로 하여금 깨끗하고 도덕적이며 성공적이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 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는 인기보다는 존경이 앞섭니다. 며칠 전 나는 월남에 수용되어 있는 미국인 전쟁 포로 두 명의 대화를 읽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젠 전쟁, 폭탄, 폭파, 포로 수용소 같은 데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사람도 진절머리가 났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동감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향에는 내가 다시 돌아 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는 나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모든 고초를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모든 어머니, 딸, 여성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영향력이 우리의 생애 선한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탄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훌륭하고 깨끗한 삶을 영위하겠다는 결의, 욕망, 용기, 힘을 가져야 합니다. 소녀 여러분, 역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킨 청순한 청년을 맞기에 합당한 덕성을 쌓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집에 함께 들어

가 영원한 결혼의 신성한 약속으로 인봉되어 하나님께 기쁘게 그의 영의 자녀를 주실 수 있는 가정을 마련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여러분이 보여 주는 행동이 곧 행복과 영원한 진보에 이르는 길임을 알고 안전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이러한 특권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자녀에게 그러한 것을 줄 수 있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지구가 창조된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영의 자녀가 내려와 육신을 입고 들깨 지체를 지키면서 구원과 승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거처할 곳을 마련해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주부로서, 자매로서, 애인
으로서, 또는 좋은 이웃으
로서의 역할을 받는 과정
에서 여성이 미치는 좋은
영향을 그 정도를 측량하
기 어려울 만큼 큰 것입니
다!!”**

주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지상 목적은 인간에게 불사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부모의 지상 목적은 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을 돕는 일입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협조하는 것 이상으로 큰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훌륭한 자녀를 기르기에 합당하고 현명한 어머니가 됨으로써 인류에게 주는 지대한 공헌, 만족감, 기쁨, 이러한 것을 여성은 다른 어느 직장에서든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서 우리의 맡은 일을 잘 수행할 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허버트 후버 미국 대통령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올바르게 출생하여 자라고 교육 받은 건전한 어린이 한 세대만 있다면 정치상의 수많은 문제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보다 건강하고 정력이 넘칠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이 인용함. 대회 보고, 1931년 4월, 79-80페이지)

말일에 하나님의 예언자가 계시어 우리가 인간의 자녀에게 필요한 계시와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갖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 그의 본질, 특성을 알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계획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와 내세에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그 방법에 대하여 끊임 없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지와 영적인 복지를 위하여 우리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제정한 훌륭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는 가정의 밤으로서, 일주일에 한번 한 가족이 모두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전세계의 모든 성도가 매주 월요일 저녁이면 한 자리에 모여, 교회에서 특별히 마련하여 각 가정에 배부한 교재를 가지고 아버지를 가장으로 하여 가족의 영적 또는 세상적인 문제에 관하여 토론한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나는 기쁨을 금하지 못합니다. 이 모임을 정규적으로 합당하게 가질 때, 이것이 가정 생활에 주는 영향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많은 가정에서 나온 간증으로 증명됩니다. 나는 모든 가족이 이 프로그램에 따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을 따르면 여러분은 단합과 사랑과 헌신의 축복을 크게 받을 것이며, 그러한 축복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즐거워 할 수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매일 드리는 가족 기도와 개인 기도가 중요하듯이 가

정의 밤에서의 가족 기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남편이 교회의 가르침대로 생활하고 신권을 성실히 이행하며, 아내가 남편을 모든 면에서 협조하고, 사랑과 조화가 꽃피며,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데리고 갈 자녀를 의롭게 키우는 가정, 이러한 가정보다 더 행복한 상태를 나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불가능한 꿈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러한 꿈을 누리고 있는 가족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들이고 그대로 생활한다면 그것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가정에서 생활하게 되는 자녀는 얼마나 행복한 자녀이며, 또한 그러한 자녀를 둔 부모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므로써 얻어지는 즐거움을 만끽하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하여 노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사탄은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가정이 강하나 약하나에 따라서 사회의 성쇠가 정해진다는 사실을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하고 또 자녀에게도 가르치므로써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사탄을 몰아낼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매 여러분, 어머니의 사명을 잘 수행하려면 여러분은 훌륭한 교육을 받아 지식과 지혜를 쌓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지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하며, 성스러운 계획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지식과 지혜와 결단을 내리고 주님의 영이 도와 주실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여성이 교회의 보조 조직이나 사회 단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가정과 자녀가 우선이며 소홀히 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어머니가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복지와 행동 모두를 염려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책임은 다른 누구에게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한 어린이가 고아원이나 탁아소 등 어머니의 사랑이 없는 곳에서 성장한 어린이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하다는 것은 많은 실험과 논문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아버지도 역시 그들의 사명과 책임을 맡아야 합니다. 어린이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철이 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일, 문제 해결을 위하여 토론하고자 하거나 조연 또는 지침을 얻고자 하는 아이의 말에 귀기울여 들어 주는 일 등 자녀에 관한 모든 의무를 어머니와 함께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와 올바른 대화를 나누며 훌륭한 관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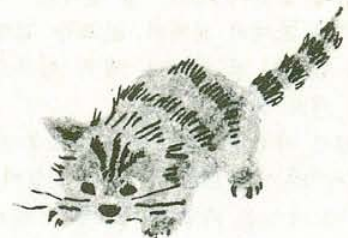
남편, 아버지, 아들, 형제되시는 여러분에게 나는 우리의 아내, 어머니, 딸, 자매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그들에게 최대의 존경과 사랑을 보여 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에게 존경을 보이지 않거나, 여성의 품격을 낮추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남자의 성품과 인격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습니다. 어떠한 남편이나 아버지라도 그의 아내를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여기는 행위는 비기독교적인 행위이며 부당한 행위이며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독일 뮌헨에서 가졌던 복합 지역 대회에서 리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업은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남편되시는 형제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여

러분은 진밀한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여러분이 가정을 단합시키는 끈을 튼튼하게 하고 자녀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가정은 자녀들이 오늘날처럼 험난한 세계에서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될 것이며, 그곳에는 항상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성이 가정과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편과 더불어 하나님의 계명, 즉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레 19:18 참조),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치라는 계명을 지킨다면, 그들의 기쁨은 커질 것이고, 그들은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축복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에게서 얻는 즐거움은 비할 수 없는 축복이며, 이러한 생을 거부한 사람은 그 축복을 결코 얻지 못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성공을 위하여 뒷받침해 줌으로써, 평안과 만족을 얻게 되며, 이들 자녀도 역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보다 좋은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가족이 하나님의 면전에 다시 되돌아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찌어다” (마 25:21)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가족에게 이것은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축복과 특권을 갖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1973년 10월 7일 일요일 오후 모임에서 하신 말씀

보상, 축복, 약속

스펜서 더블류 킴블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1974년 6월호

미 국 동부의 종교 잡지 출판업자 인 로이 에이치 스테틀러가 쓴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리바디아의 크리미아 성곽 밖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성 안은 밝은 불빛으로 눈이 부셨다. 세계의 유명한 인물이 모여 가장 중요한 대회를 열고 있는 성 밖에는 병사 한 명이 성을 지키기 위하여 일정한 보행 속도를 유지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이 병사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도 그런 것이 후에 자기의 자녀에게나 손자들에게 ‘3거두’ 회담의 보초를 자기가 섰었다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병사가 어디 있겠는가.

“그때 갑자기 유령처럼 어둠 속에서 성으로 들어 가는 길에 어떤 물체가 나타났다. 물체가 다가 오자, 병사는 어깨에서 총을 내려 경계 자세를 취하면서 명령했다. “정지! 누구냐? 신분을 밝혀라!”

“낮선 사람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러 왔소’라고 말했다.

“‘미친 놈!’ 보초병은 말했다. ‘성안에 못들어 간다. 성 안에는 “3거두”가 모여서 세계의 진로를 결정하고 있다는 걸 알기나 해? 아무도 들어 가지 못해.’

“낮선 사람은 “‘3거두’라고요? 왜 ‘3거두’라고 부르죠?’라고 물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란 말이다.’ 보



초병은 대답했다.

“낮선 사람은 보초병을 뚫어지게 쳐다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눈은 빛이 났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들을 도울 수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계획을 채택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을 아주 평화롭게 만들 수 있을텐데요.’

“병사는 소리내 웃었다. ‘네 갈 길이나 가, 이 친구야. 신임장도 없는 놈이’

“낮선 사람이 대답했다. ‘신임장이라고요? 없죠—여기에서는’ 그는 떠나면서 그의 손을 들어 인사했다. 보초병은 그의 손에 있는 보기 흉한 상처를 보았다. 다른 손을 보니 역시 상처가 있었다.

“‘전쟁에 나갔었나?’ 보초병은 약간 정중하게 물었다. ‘손에 상처가

있군’

“낮선 사람은 돌아서며 말했다. ‘아니오. 당신이 보시지 못할 줄 알았는데요. 이 상처는 전장에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마치자 그는 갑자기, 마치 어둠이 삼켜버린 듯이 사라져 버렸다.

“보초병은 그의 뒤를 쫓았으나 만나지 못했다. ‘내가 알아야 했는데’ 그는 후회했다. ‘그를 들여 보냈더라면!’ 그는 실망에 차서 땅바닥에 펄썩 주저앉았다.”

이 낮선 사람은 지상의 온 인류에게 축복을 가져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낮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사람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의 손발에 있는 상처는 무엇이니이까? 하리니 그때에야 저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는 내가 저들에게 이같이 말할 것임이니, 이 상처는 내가 나의 친구 집에 있을 때에 입은 상처니, 나는 들리운 자요,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리라.”(교리와 성약 45 : 51-52)

이 생애는 보상과 벌을 받는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잠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오는 보상에 관하여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좇으니라.”(마태복음 4:18-20)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이야고보와 요한이 그를 따랐습니다.

(마 4:21 참조)

두 가족의 형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모든 축복 중의 가장 큰 축복이요 명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오늘부터 30년전인 1943년 10월 7일 거의 이 시각에 나는 히버 제이 그랜트 대판장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성임되었습니다.

시현이라 불리우는 교리와 성약 76편 계시에는 약속된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계명을 지킴으로써 저들이 씻음을 받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고 성임받아 성신을 주는 권능에 인봉된 자의 안수로써 성령을 받게 하려는 것이니라.

“저들은 신앙으로 승리한 자요, 아버지께서 의롭고 참된 모든 자에게 부여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신으로 인봉된 자니라.

“저들은 장자의 교회의 회원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저들의 손에 맡기신 자니라.

“저들은 제사와 왕이요 그의 충만하심과 영광을 받은 자요,

“가장 높으신 이의 제사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자요, 예녹의 반차를 따른 자요, 독생자의 반차를 따른 자니라.

“그런고로 기록된 바와 같이 저들은 신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따라서 만물은 저들의 것이라. 살았거나 죽었거나, 현재 것이나 미래 것이나, 다 저들 것이요, 저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니라.

“또 저들은 모든 것을 이기리라.”(교리와 성약 76:52-60)

“이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의로운 자의 부활에 나아 올 자니라.

“이들은 새 언약의 증보자 예수를 통하여 완전하게 된 의로운 자니, 예수는 자기 피를 흘림으로써 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교리와 성약 76:62, 65, 69)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갈릴리...에서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마태복음 4:23, 25) 또한 다른 곳에서도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 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마태복음 5

:1-12)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축복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언자 요셉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또 이같이 해의 영광을 보니, 모든 것이 휘어났고 그 곳은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보좌에 앉으사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곳이었다.

“그 보좌 앞에 모든 자가 겸손하고 경건하게 경배하며, 아버지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더라.”(교리와 성약 76:92-93)

“태양의 광채가 하나인 것같이 해의 영광도 하나요”(교리와 성약 76:96) 또 다시,

“그러나 주의 일은 위대하시고 놀랍도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왕국의 비밀은 영광과 힘과 지배력에 있어서 어떠한 이해력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것이더라.

“또 이 일은 사람의 말로서는 알릴 수 없는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와 자기 앞에서 순결하게 된 자에게 내리시는 성령의 권능으로써만이 보여 주시고 이해하게 해 주시는 것임이라.

“이러한 자에게는 스스로 보고 아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느니라.”(교리와 성약 76:114, 116, 117)
1832년에 받은 시현으로 알려진 계시는 다음과 같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여러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거기 사는 주민들아, 기뻐하라. 주는 하나님이시요, 주의에는 구세주가 계시지 아니함이라.

“그의 지혜는 위대하시며 그의 길은 놀라우시니, 그가 하시는 일의 한계는 아무도 알아내지 못하다.

“그의 목적은 실패하는 때가 없고 그의 손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나니,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신 분이요. 그 연륜은 결코 다함이 없도다.

예수께서 세상에 나가시
어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
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
은 항상 축복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 주는 나를 두려워 하는 자에게 자
비로우며, 은혜를 베푸나니, 끝까지
의와 진리로 나를 섬기는 자를 존귀
하게 하기를 기뻐하노라.

“저희 상은 클 것이요, 저희 영광은

영원하리로다.”(교리와 성약 76 : 1
-6)

그가 축복을 약속해 주실 때는 이
를 성취하시며, 약속을 맺으실 때는
지키십니다. 1831년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가 이야기한 바는 참되도다.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거니와 천지가
없어져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
고 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
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
니라.”(교리와 성약 1 : 38)

주님의 메시지는 사랑과 화평입니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
시기 전에 사도들을 준비시키실 때 다
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
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
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
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 14
: 12)

우리는 아브라함이 마므레 평원에
있을 때 세 사람이 그를 찾아 왔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몸을 땅에 굽혀 영접하자 그들은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
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
이 말을 이었습니다.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
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
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
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
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창세
기 18 : 9-14)

확실히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성도의 벗 1974년 6월호



라곤 없습니다. 그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1833년에 주가 주신 약속은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는 애굽 시대의 사건과 연결시키면서 “멸망의 천사가... 저들을 지나치며 살해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저들이 건강을 얻고 뼈의 골수에 힘을 얻고 배꼽에 건강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큰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 찾으리”(교성 89: 18-21 참조)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면 이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주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되풀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 14: 15)

바다의 깊은 심연 속에는 사나운 파도가 침범치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조용하여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리는 생의 깊은 경지에 이른 사람은 굳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의 풍파가 몰아 닥쳐도 요동치 않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참으로 여러 가지 훌륭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경전을 읽어 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계명대로 생활하는 증거로 주어지는 보상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또 하나의 중요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의롭게 생활한 자는] 다만 눈 깜박하는 사이에 변화...되리라”(교리와 성약 101: 31)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세주니, 이 일을 너희 가슴 속에 간직하라. 그리하여 영원한 엄숙함이 너희 마음속에 머물러 있게 하라.

“근신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키라. 진실로 그러하다.”(교리와 성

약 43: 34-35)

또 다른 약속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의 때가 이르면 나는 심판하러 세상에 오리니, 나의 백성은 구속함을 받아 나와 더불어 세상을 다스리리라.”(교리와 성약 43: 29)

시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약속된 축복을 읽을 수 있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 의 것이로다...

“여호와와 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시편 24: 1-5)

말일의 경륜의 시기에 이와 같은 큰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이는 나의 축복을 받을 자는 그 축복을 주기 위하여 정하여진 율법과 조건을 창세 이전부터 제정된 그대로 반드시 지켜야만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132: 5)

주님은 영원한 축복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 저들이... 여러 천사와 신들 옆을 지나가서 저마다 자기 머리에 결봉된 대로 자기 승영에 이르러 온갖 일에 영광을 누리리니, 그 영광은 완전한 최고의 영광이요, 영원토록 그 자손이 계속되는 것이니라.

“그때에 저들은 끝이 없으므로 신이 될 것이요... 그리하여 저들은 신이 되리니, 이는 저들이 모든 권능을 가졌고 또 천사들도 저들에게 복종함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를 받아 들이면 나를 알게 될 것이요, 너희의 승영을 받으리니,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132: 19, 20, 23)

주님은 이스라엘의 자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같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 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레위기 26: 9-12)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면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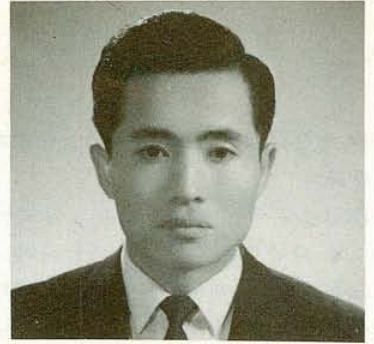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하지도 말라”(요 14: 27)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이 이상 무엇을 우리가 바랄 수 있었습니까? 계명을 충실히 지키고 진실하게 행동할 때 이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이 모든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주님은 그의 참된 교회를 이 지상에 조직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든 프로그램을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언자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해롤드 비리 대관장은 하나님의 왕국과 이 왕국에 속한 백성의 지도자이며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실히 압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숙하게 간증드립니다. 아멘

준비하는 젊은이



스테이크부장단 제2보좌 최옥환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도 인간의 발 아래 정복되었고, 인간의 용기와 인내는 마침내 또 다른 우주를 정복했다는 기사를 들은 지도 오래다. 이제 인간은 대지를 정복했고 대양을 정복했으며 거리를 단축했으며 우주로 진출을 치고 있으며 자기 스스로를 제외한 모두를 정복했다고 보아야 할 정도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도 여러분께 있으며 아무도 이러한 특권을 탈취해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계가 이기심과 천박함과 불결함을 배척하고 보다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젊은이를 바로 이 시대처럼 요구한 때는 없었습니다. 바로 오늘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과 인생의 목적에 대한 태도가 내일의 여러분의 조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자기를 통제하되 가정에서는 화를 다스리고 과격한 이야기나 욕된 얘기는 삼가야 하며 혀를 다스림으로써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나 충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스스로의 욕망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는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니 감정에 빠진들 어떠랴?」라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근대 심리학자나 거짓된 교사, 엉터리 지도자 중엔 자기억제나 극기는 그릇된 가르침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방종하는 것이 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방법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만, 간곡히 부탁 하거니와 절대로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래에 자신을 잊고 무분별한 질주를 하는 일이 이 땅에서도 있었음이 지상을 통하여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분별없는 모방이나 방종은 생의 퇴보만을 자초할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이 육체를 얻어 성장해 가고 있는 시점에 있음은 사실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육체를 허가 하셨고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분별의식도 주셨으며, 판단하고 극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늘 바로 판단하고 사리에 맞게 살아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질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말은 「조지 엘리엇」이 한 말로써 우리에게 매우 함축성 있는 말로 들립니다. 특히 이 말은 생에서 준비하는 시기에 놓인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합니다. 인생은 짧고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책임은 불어나고 준비할 기회는 적어지는데 젊은이들이 재능과 기술을 발전시키며 장래에 가질 직업이나 보다 큰 생의 임무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기회를 도외시하고 있음을 깊이 생각해 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해서 배울 기회를 가진 자가 도중에서 떠나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며 좌절감이나 실망속에 자신을 내버리고 있는지 그 까닭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인생이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입니다. 말하자면 생명이 라든지 우리가 가진 손, 마음, 근육, 정신, 즐겨 준비하며 기꺼이 일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심령 속에 학문의 축복과 훌륭한 목표를 설정하여 이에 매진하는 축복과 자격있는 자가 되며 인생의 노년기에 닥쳐올 허무감을 맞보지 않을 축복을 심어줄 수 있도록 마음과 시간과 재능을 다하여 지속적이며 최선의 봉사를 아끼지 않아야겠다. 「성공의 비결은 기회를 받아들이도록 준비하는 데 있다」고 디즈레일리는 말했습니다. 만일 이 시간에 어떤 목표에 도달해야 하는 젊은이가 있다면 그는 먼저 자기의 학문을 추구하고 준비해야 하며 생활을 위해 능력과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사물을 깊이 판단하고 훌륭하게 행동에 옮겨야겠다. 무엇인가 주려고 노력해야겠고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를 위해 유익한 인물이 되며 자신을 위해서도 봉사하며, 남이 필요로 하고, 원하며, 남에게서 받는 감사와 보상으로 큰 만족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선용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질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 사회가 원하는 젊은이는 바로 선용하고 준비하는 젊은이가 아닐까요? 